

James & 1,2 Peter:

A Three-Hour Course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Bible Correspondence Center
Seoul Bible Institute
Seoul, South Korea
October 12 – December 1, 2020**

**David South
Instructor**



Introduction

개요

NOTE: The word “introduction” is a technical term used in the field of biblical studies. It refers to a consideration of such matters as authorship, date, background, setting, critical problems, etc. of the Bible document being studied. It deals with those things that might affect one’s understanding of what has been written.

개요란 성경연구 분야의 기술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성경 문헌 연구를 위해 저자, 연대, 배경, 당시 상황, 중요한 문제점 등에 대한 고찰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개요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루게 된다.

Introduction to the Letters of James and Peter

야고보서와 베드로서 개요

- A. The Bible contains a variety of genres. God has chosen to give his word to humans in human form. Understanding the genre in which a document was written helps one to interpret the document properly. For example, historiography is not interpreted the same way as legal code or poetry. There are certain expectations with the various genres in any culture. The better one understand the genre, the more prepared he is to properly understand the text. Thus, those who study biblical documents must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the genre at the time the document was written.

성경은 여러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성경 문헌에서 각각의 장르에 대한 이해는 독자에게 그 문헌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역사에 관한 문헌(역사 기술)은 율법서나 시가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느 문화권이나 다양한 장르별로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장르를 더욱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본문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렇듯 성경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문헌이 쓰인 당시의 장르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 B. James, 1 Peter, and 2 Peter are letters.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1. Letters are occasional literature. What that means is that some occasion arose that required the letter to be written.

서신은 특정한 경우에 기록하는 문헌이다. 이는 그 서신을 기록된 어떤 특정한 경우(혹은 사건)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2. Since there was often some previous connection between the author and the original recipients, the occasion that demanded the letter is not always clearly stated. One must infer the occasion from the kinds of things that are written in the letter. Also, elements of that previous connection may be assumed by the author. The original readers would know some background that modern readers may not know. For example, there may be some common experiences or conversations between the author and recipients of which modern readers are unaware. This requires some caution in reading and interpreting this type of literature.

저자와 수신인 사이에 종종 어떤 선행 연결고리가 있으면 편지를 써야할 사건(경우)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럴 때는 서신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통해 해당 사건(경우)이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혹은 선행 연결고리의 요소를 저자가 전제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서신의 최초 수신자는 오늘날 독자로는 알 수 없는 그 서신의 배경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독자로서는 모르는 저자와

수신자 간의 공통된 경험이나 대화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서신서 같은 장르를 읽고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3. As to form, a letter in the first century usually contained the writer's name, the recipient's name, a greeting, and then the body of the letter. New Testament letters sometimes have an extended opening. The author might expand on his identity or the identity of the recipients or he might offer an extended greeting. For example, the greeting in the letter of James is only the simple word "greetings." Peter gives a few more words in both his letters. For a more extended greeting, one might consult some of the letters of Paul.
제1세기 서신의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글쓴이의 이름, 수신인의 이름, 문안 인사, 편지 본문 등이 들어간다. 신약에는 서신서들은 종종 여러 수신인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들이 있다. 그 경우 저자는 자신과 수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하고 문안을 두루 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서는 "문안하노라"하고 간단하게 문안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에서 좀 더 긴 문안을 한다. 바울 서신서에도 이런 예가 나온다.
4. New Testament authors often included an identifying note that signaled their authority. For example, Peter identifies himself as an apostle of Jesus.
신약 저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는 글을 포함하기도 했다.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사도라고 명시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C. There are various obstacles to continued faith and continued connection to God. These three letters address some of those obstacles.

지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다. 이 세 서신서에 그런 장애물들이 언급되어 있다.

1. The Letter of James was written to those who were relatively new Christians. They still needed to learn some of the basics of Christianity in order to maintain their connection to God. Thus, this letter contains instructions about some basic beliefs and practices. My label for our study will be "Coping with Young Faith."
야고보서는 비교적 신앙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아직 그리스도교의 기본을 더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기본적인 믿음과 실행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다. 필자는 이 서신서에 관한 연구를 "초신자의 대처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2. The First Letter of Peter was written to those who were beginning to suffer severe persecution for their faith. Adversity in life can cause people to abandon faith. Thus, this letter includes instructions to help Christians know how to deal with adversity and keep their faith. My label for this study will be "Coping with Adversity."
베드로전서는 믿음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인생의 역경이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서신에는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필자는 본 서신서에 "역경 극복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3. The Second Letter of Peter was written to those who were facing the threat of false teaching. Wrong teachings lead people away from Jesus and his truth. This letter includes instructions on how to withstand the onslaught of wrong teachings. My label for this study will be "Coping with False Teachings."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훈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다.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예수와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 서신은 거짓 교훈의 맹공격으로부터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교훈 하고 있다. 필자는 본 서신서 연구에 “거짓 교훈의 극복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Introduction to James

야고보서 개요

A. Authorship

저자

1. Of primary importance is that one remember who ultimately authored all books of the Bible. The Bible is inspired (2 Tim. 3:16-17; 1 Cor. 2:9-14). God chose to deliver his message to humans in human terms. He chose to deliver that message through human messengers. To discuss, then, the authorship of a biblical document is to discuss the effort to uncover who the human author was – remembering that God is the ultimate author of all biblical documents.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딤후 3:16-17, 고전 2:9-14).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셨다. 사람이라는 전달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문헌의 저자를 논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저자인가를 찾는 논의의 노력이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성경 문헌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2. The author is clearly stated in the text: it is James the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1:1). 본문 안에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이다.
 - a. James was actually a very common name in the first century. Most likely this would have been a prominent figure. An unknown man named James surely would not have written an authoritative letter without some reference of authority that would make people listen to him. It would seem from his identification of himself simply as a servant of Jesus that he would have been prominent enough that further identification was not necessary – everyone knew him. 야고보는 제1세기에 흔한 이름이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그런 권위를 밝히지 않고는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을 가리켜 간결하게 예수의 종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이제는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다.
 - b.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four men in the New Testament named James: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brother of John (an apostle). James the son of Alphaeus (an apostle – see Mt. 10:1-4), James the father of Judas the apostle (not Iscariot) (Lk. 6:16), and James the half-brother of Jesus (not an apostle – see Mt. 13:55). 그런데 문제는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이 네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사도),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사도, 마 10:1-4), (가룟이 아닌, 마 13:55) 예수의 또 다른 형제 야고보.
3. The most likely of these to be the author of our book is the brother of Jesus. 이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거의 확실하게 예수의 형제 야고보인 것 같다.

- a. Likely it would have been a well-known man, since James was a common name and he gives no additional identifying information. He assumed the readers would know who he was. This likely would eliminate James the father of Judas, about whom we know almost nothing.
그는 잘 알려진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가 당시 흔한 이름이었지만 특별히 부가적으로 그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렇다. 그는 독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저자로서 배제된다 할 것이다.
- b. James the son of Zebedee was killed by Herod (Acts 12), likely before the book was written.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전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행 12).
- c. The James who wrote this book was probably NOT an apostle. If an apostle, he would have made note of that somewhere in the letter – because it related directly to authority. (E.g., Paul usually made some reference to his apostleship somewhere in his letters, usually at the beginning. Peter identified himself as an apostle in his letters). Further, consider the fact that James was a common name – the recipients could not automatically assume it was an apostle.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아마도 사도는 아닌 것 같다. 그가 만약 사도였다면 서신에서 그 점을 밝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는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참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그의 서신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당시 흔한 이름이었으므로 수신자들은 으레 적으로 그가 사도는 아니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 d. Also interesting is the fact that this James, the brother of Jesus, seemed to be a major figure in the church at Jerusalem (Acts 15:13ff; 21:18; Gal. 1:19; 2:9, 12). This fits well with the contents of the letter.
또,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행 15:13, 21:18, 갈 1:19, 2:9, 12). 이 점이 본 서신의 내용과 잘 어울린다.

B. To Whom It Was Written

본 서신의 수신인

1. The twelve tribes

열두 지파

- a. This is a Jewish designation referring to the descendants of the twelve sons of Jacob (who was renamed Israel).
이것은 야곱의 열 두 아들의 후손을 가리킨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뀐다).
- b. It must be remembered, however, that Jewish terms are sometimes used figuratively and applied to the church, which is spiritual Israel. 그러나 유대인들이 용어를 종종 상징적으로 사용했으며, 교회 곧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i. 1 Cor. 10:18 – “Israel after the flesh” implies that there must be an Israel after the spirit. Otherwise, the modifier “after the flesh” is completely unnecessary.
고전 10:18 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육신을 따라 난”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필요 없었을 것이다.

- ii. Rom. 2:28-29 – Being a Jew in this passage is linked not to physical lineage, but spiritual obedience.
롬 2:28-29 이 구절에 나오는 유대인은 육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 순종에 따른 후손임을 보여준다.
 - iii. Thus, the term “twelve tribes” could very well refer to the church in a figurative expression.
그러므로 “열 두 지파”는 상징적 표현으로 교회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 c. In fact, unbelieving Jews could hardly have been intended by James.
사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언급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다.
 - i. He presents none of the evidence that would be needed to convert them to Christ, which is a common element in other lessons in the New Testament aimed at unbelievers (e.g., consider the sermons in the book of Acts).
야고보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개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데 개종에 대한 교훈은 신약성경에서 불신자들을 상대로 공통으로 나오는 중요한 요소이다(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 ii. This material was not written to convert people to Christ, but to give instructions to Christians on how to live the Christian life.
본 서신서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개종시키기 위해 쓴 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다.
 - iii. References throughout the epistle indicate that Christians are the recipients (e.g., 2:1, 14).
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 수신자임을 언급하고 있다(2:2, 14).
 - d. There is a Jewish flavor to the epistle (e.g., the reference to “synagogue”). This is likely because it was written very early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because the recipients were those Jewish Christians who were forced to flee Jerusalem due to persecution. See the next point.
본 서신에는 유대인의 특성이 나온다(예: 회당에 언급 등). 이 점은 본 서신이 교회 역사상 매우 이른 초기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수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 참조)
2. Scattered abroad.
- 해외로 흩어짐
- a. This is again a Jewish phrase. The Greek term is “diaspora,” and it referred in general to the dispersion of Jews across the world.
그리스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 b. In this context, it seems to be used figuratively to refer to Christians who were scattered.
본문에서 상징적인 면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i. Acts 8:1, 4; 11:19 use the corresponding Greek verb to refer to the Christians who were scattered because of persecution from their fellow Jews.
행 8:1, 4, 11:19에서는 박해 때문에 그들의 동포 유대인을 떠났음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동사가 사용되었다.
 - ii. It seems likely that James may have written to these very

people.

그러므로 야고보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다.

3. Some interesting observations: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

- a. James, the Lord's brother, seemed to be an elder and a major figure in the Jerusalem church.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같다.

- b. The recipients of this letter seem to have been those Christians who had been scattered from Jerusalem due to persecution.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다.

- c. It seems proper that James would write a letter to them to encourage and teach them further about Christian living, since he had been their shepherd.

야고보는 그들의 목자(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으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 Date

연대

1. The date of the letter cannot be set with a great deal of certainty or accuracy. Some details that we know give us a general idea.

본 서신이 기록된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일반적인 정황 뿐이다.

- a. It had to be in the lifetime of James. The secular reports of James' death indicate that he died sometime around A.D. 62-65. This sets the limit on the latest it could have been written.

본 서신은 야고보의 생전에 기록되었다. 역사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주후 62~65년경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아무리 늦어도 본 서신이 그 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 b.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Jewish-Gentile controversy.

본 서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지 않는다.

- i. James was involved directly with this issue, when it erupted in Antioch and involved the Jerusalem elders (Acts 15).

(그러나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논쟁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 그것은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 일에 관여했다(행 15).

- ii. He does mention respect of persons in the letter, but only discusses rich-poor favoritism, and not Jewish-Gentile favoritism.

물론 본 서신에서 사람에 대한 존경을 언급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논쟁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논의였다.

- c. There was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but not from the Roman government. It was persecution by the rich (5:1ff). Remember that the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first came from other Jews. This means it had to be before the 60's, because persecution in that time came from the Roman government.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박해는 아니었다. 그것은 부자에 의한 박해였다(5: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먼저 다른 유대인들로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 점은 본 서신의 저작연대가 60년대

이전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는 6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 d. Famine and poverty perhaps are implied (1:27; 2:15-18). One famine hit about AD 44. This may be the earliest it could have been written.

기근과 가난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다(1:27, 2:15-18). 한번은 기근이 주후 44년에 있었다. 그렇다면 가장 이른 본 서신의 저작연대는 주후 그 당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A good guess would put the letter in the mid to late 40's (45-49). If so, it is likely the first of the New Testament books to be written. (Some suggest that Galatians might have been written before James).

본 서신의 저작연대를 40년대 중반부터 후반(45-49)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음)

- D. Authenticity. Doubts have been expressed by some as to whether this document ought to be included among the sacred writings. An investigation of the ancient external evidence will find some incomplete evidence that might indicate some doubt about the authenticity of this document. There can be found, however, evidence that treats the document as inspired and authoritative just as the rest of the New Testament documents.

문서의 신빙성. 이 서신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었다. 고대의 외적 증거에 관한 연구는 본 문서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의 다른 문서의 신빙성과 영감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심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 1. It is not listed in the Muratorian Canon. But, there are other documents not found there as well, and it is widely thought that the extant copies of the Muratorian Canon are incomplete.

본 서신은 무라토리 목록 (1740년 무라토리가 발견한 신약성경 목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 목록에 나오지 않는 다른 문헌들도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무라토리 정경(목록)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 2. It is suggested that Origen expressed some doubt as to the authenticity of this letter. But, the sentence so interpreted can also be interpreted otherwise. And, there are other places in his writings where Origen cites the document as authoritative.

오리겐은 본 서신의 권위에 의심을 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리겐이 쓴 다른 문서에서 야고보서를 권위 있는 문서에 본 서신을 권위 있는 서신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 3. Martin Luther rejected James, but that was mostly due to his theology and his conclusion that James contradicted grace as taught by Paul in Romans. The truth is that when both Romans and James are properly interpreted, they do not contradict each other at all.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accurate Bible interpretation. Wrong interpretation can lead to a variety of errors in judgment and application.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배척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은혜의 교훈과 모순된다는 자신의 신학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바로 이해하면 그 두 문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잘못된 해석은 판단과 적용에 있어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Outline of James

야고보서의 요점

I. True Religion (1)

참된 경건

- A. Endures Life's Trials (1:2-12)
삶의 시련에 대한 인내
- B. Withstands Temptation (1:13-15)
시험(유혹)을 견딤
- C. Sees the True Nature of God (1:16-18)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
- D. Controls Temper and Tongue (1:19-20, 26)
급한 성격과 혀를 제어함
- E. Actively Obeys God's Will (1:21-25)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 F. Cares About Others (1:27)
다른 사람을 돌봄
- G. Stays Pure (1:27)
정결한 삶에 머무는 것

II. True Faith (2)

참된 믿음

- A. Faith and Prejudice (2:1-13)
믿음과 편견
 - 1. Definition of prejudice (2:1-3)
편견에 대한 정의
 - 2. Effects of prejudice (2:4-11)
편견의 영향
 - 3. Solution to prejudice (2:12-13)
편견에 대한 해결책
- B. Faith and Obedience (2:14-26)
믿음과 순종
 - 1. Dead faith (2:14-18)
죽은 믿음
 - 2. Demonic faith (2:19-20)
마귀의 믿음
 - 3. Dynamic faith (2:21-26)
역사하는 믿음

III. True Speech (3:1-12)

참된 말

- A. Warning to Aspiring Teachers (3:1)
선생에 대한 경고
- B. Speech and Maturity (3:2)

- 말과 성숙
- C. Power of Speech (3:3-6)
혀의 힘
- D. Difficulty of Taming the Tongue (3:7-8)
혀를 길들이기 어려움
- E. Dangers of Inconsistent Speech (3:9-12)
일관성 없는 말의 위험성

IV. True Wisdom (3:13-4:17)

참된 지혜

- A. Heavenly Wisdom Versus Earthly Wisdom (3:13-18)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
- B. Worldliness Defined (4:5)
세속화에 대한 정의
- C. Effects of Worldliness (4:1-4)
- D. How to Defeat Worldliness (4:6-17)
세속화에 대한 대처법
 - 1. Recognize God's grace (4:6)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 2. Submit to God (4:7, 10)
하나님께 복종
 - 3. Resist the devil (4:7)
마귀를 대적
 - 4. Draw near to God (4:8)
하나님께 가까이함
 - 5. Cleanse your hands (4:8)
손을 깨끗하게 함
 - 6. Purify your hearts (4:8)
마음을 성결케 함
 - 7. Be truly sorry over sin (4:9)
죄에 대한 진실한 후회
 - 8. Avoid slander (11-12)
비방을 피하라
 - 9. Include God in all your plans (4:13-16)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하여라
 - 10. Do what you know to be right (4:17)
선한 일을 행하라

V. True Patience (5)

참된 인내

- A. Prophetic Condemnation of the Rich (5:1-6)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 B. Lesson for Christians: Be Patient (5:7-11)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 인내하라
- C. Various Admonitions (5:12-20)
여러 가지 권면
 - 1. Do not swear (5:12)
맹세하지 마라

2. Pray when you are afflicted (5:13)
고난 겪을 때 기도하라
3. Sing praises when you are happy (5:13)
기쁠 때 찬송하라
4. Call the elders when you are sick (5:14-15)
아플 때 장로를 청하라
5.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5:16)
서로 죄를 고백하라
6. Pray for each other (5:16)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7. Work to restore the erring (5:19-20)
잘못에 미혹된 자를 돌이켜라.

True Religion (James 1)

참된 경건

I. Endures Life's Trials (1:2-12)

인생의 시련에 대한 인내

A. Joy in Trials (1:2-4)

시험받을 때 기뻐하라

1. The Greek word *peirasmos* can mean either temptations or trials. “Trials” would refer to the difficulties of life that come upon you from without. “Temptations” would refer to the urges to wrong behavior that arise from within.

헬라어로는 유혹과 시험을 뜻한다.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가리키며, “유혹”은 우리 마음속 내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는 것을 가리킨다.

- a. The context will shape the meaning.

앞뒤 문맥이 그 뜻을 분명히 해 준다.

- b. Since verse 3 refers to these things as “trying” your faith, it must be trials here.

3절에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으므로 그것은 시험인 것이다.

- c. This is why James wrote that you “meet” or “fall into” (*peripipto*) these trials. You do not fall into temptations (as vv. 13-15 will show later), but you fall into troubles.

그런 이유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라고 했다. 그렇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13-15절) 시험을 당한다는 뜻이다.

2. Why should we count it joy when we have difficulties in life?

시험을 당할 때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 a. They try our faith. “Try” comes from the Greek word for testing gold or to see if it is gold or not (*dokimion*). It is used in the sense of putting something to the test to either approve it or disprove it. Troubles in life test our faith – to see if it is real or not. The same sun melts butter and hardens clay; the same troubles strengthen the faith of some and destroy the faith of others.

시험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본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시험해 보아 합격이나 불합격을 가리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태양은 버터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은 굳게 만들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시험이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 b. They also build endurance (*hupomone* — which means to remain or stay. It is the idea of perseverance or persistence, or endurance).

시련은 또 인내를 만들다. 이는 여전히 머물거나 남아 있는 것을 뜻한다. 끈기, 지속, 인내의 개념이다.

- c. We need endurance in order to be mature, full-grown, and complete in our faith. *Teleios* means mature or full grown. *Holokleros* means complete in every part. Thus, we need endurance in order to be mature, complete Christians (cf 2 Pet. 1:5-7; Heb 10:36-39).
성숙하고 완전히 자라고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이는 온전히 자란 것을 뜻한다. 모든 면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벧후 1:5-7, 히 10:36-39)
- d. The point is that troubles in life are unpleasant, but they can have a positive impact in the development of our faith.
핵심은 인생의 시험이 즐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 믿음의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3. Notice the role knowledge plays in all this. We find joy in the troubles of life when we KNOW that they build us up. It is the knowledge of how these things can make us strong that allows us to see them in the right way, and thus find joy.
여기서 지식이 관건임을 주목하라. 시련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점을 안다면 시험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이런 시험들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올바른 길을 바라보게 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식이며, 그러므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B. Wisdom (1:5-8)

지혜

- 1. If you lack the understanding of these things, ask for it. Wisdom is more than just being clever. It is knowing how to use knowledge. Wisdom has to do with how you approach life (cf 3:15-17). God will give you the wisdom you need.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구해야 한다. 지혜란 단지 영리한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어떻게 지식을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다. 지혜는 어떻게 인생을 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3:15-17).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 2. God gives liberally and does not reproach. He will not rebuke you for asking too often for wisdom.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자주 지혜를 구한다 해도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 3. But, you must ask in faith, nothing wavering. What does this mean? It does not mean that you ask, believing without doubt that you will get it. It means that you ask, while living a faithful, unwavering life. The one who is unsure of his faith is like the boat that is tossed around in a stormy sea. This is clarified by the following statement. The double-minded man will not receive this from God. Double-minded refers to the idea that you are not completely devoted to God – i.e., you are unsure that you want to serve him.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는 구하고 그대로 받을 것을 의심치 마라는 뜻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구하라는 뜻이다.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지(맡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C. Equality (1:9-11)

평등

1. In what way is the poor exalted and the rich made low? While there is distinction in the world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church they are equal. So, the rich man is brought down to the level of the poor man and the poor man is brought up to the level of the rich man (cf. Gal. 3:28).
어떤 점에서 낮은(가난한) 자는 높임을 받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받을까?
세상에서는 이 두 부류를 구분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들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낮은 자의 위치만큼 낮은(가난한) 자는 부한 자의 위치만큼 올려지는 것이다(갈 3:28).
2. The rich man is compared to the flower of the grass. In the countryside of Israel, grass and flowers spring up during the rainy season. It is a beautiful sight. But, they burn up and disappear just as quickly when the rainy season is over. The point here is that the rich man will pass his life here just as quickly as the poor man. His wealth will not exempt him from death. So, he can rejoice in his place in God's family rather than rejoicing in his money. The illustration applies to all people, not just the rich. It is a common biblical image (Ps. 103:15; Is. 40:6-8; 1 Pet. 1:24-25).
부한 자를 풀의 꽃과 비교하고 있다. 이스라엘 시골에서 풀과 꽃은 우기에 아름답게 자라난다. 그러나 우기가 지나면 곧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덧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점이다.
부자라고 해서 죽음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부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다(시 103:15, 사 40:6-8, 벰전 1:24-25).

- D. Conclusion (1:12). James pronounced blessing on the one who endures. The one who endures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cf. Rev. 2:10) which the Lord has promised it (cf. Also 2 Tim. 4:8). This is available to both rich and poor alike.

결론(1:12).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다. 인내하는 자는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계 2:10, 딤후 4:8) 이 상급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받을 수 있다.

II. Withstands Temptation (1:13-15)

시험을 견딤

A. God does not tempt us.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1. "Let no one say..." This is a common thing for people to do. It began with Adam – "the woman YOU gave me..." People today blame their sins on God. Consider, for example, homosexuality – one common excuse is, "God made us this way, we cannot change."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하고 말하지 마라 했다. 핑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핑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렇듯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께 핑계를 돌린다.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공통된 핑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바꿀 수 없다.”
2.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1 Jn. 1:5). God is so far away from evil that he is beyond being tempted with evil things.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빛이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요일 1:5). 하나님은 악에서 멀리 떠나 계시며 그는 악한 것들로부터 시험 받는데도 멀리 떠나 계신다.
 3. So he does not tempt others with evil.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4. The point is that God is not the source of temptation.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시험의 근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 B. The real source of temptation.
시험의 실제적인 근원
1. One is tempted when he is lured away by his own desire. No one can TAKE us away from God (Jn. 10:28-29; Mt. 12:29). But we CAN walk away from God. Do not ever allow desires to draw you away from that which you know to be right.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갈 때 시험을 받는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뺄 수 없다(요 10:28-29, 마 12:29).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안다면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Since he cannot take us from God, Satan tries to lure us away. The image is one of fishing. The fisherman tries to lure the fish away from his safe haven to take the bait. This is the way Satan works – building on our own desires – note “his own desire.”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뺄 수 없으므로 욕심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낚시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그들의 안전한 곳에서 미끼로 유혹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욕심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이다.
- C. Temptation, when one gives in to it, causes sin. The temptation is not a sin; the sin is when one gives in to the temptation and behaves in a way contrary to God’s will (cf. 1 Jn. 3:4).
욕심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다. 시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란 사람이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 짓게 된다.
- D. The result of sin is death (Rom. 6:23).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롬 6:23).
- E. One major point out of this is that we are each responsible for our own actions (2 Cor. 5:10; Ezek. 18:20). American example: The doctor from Virginia who blamed her drunken attack on policemen on PMS – and was acquitted.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고후 5:10, 겔 18:20). 미국의 예: 버지니아주의 의사가 월경통을 느끼며 운전하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라고 비난하자 그 경찰을 발로 찼지만, 무죄로 석방되었다.
- G. Question for further reflection: what can you do to avoid temptation?
시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Stay away (Pr. 4:22-5:8; Gen. 39:11-12)
유혹을 멀리해라(잠 4:22-5:8, 창 39:11-12).
 2. Learn the Bible (Mt. 4:1-10; Ps. 119:11)
성경을 배워라(마 4:1-10, 시 119:11)
 3. Assemble with the saints to worship (Heb. 10:24-25)

III. Sees the True Nature of God (1:16-18).

하나님의 참 속성을 보라(1:16-18)

- A. Do not be deceived (16). The Bible abounds with warnings about deception. The funny thing about being deceived – if you are deceived you do not know it. Many today have fallen for this deception. They blame God for their illicit desires and the temptations that result. For example, some say, “Why did God give us marijuana, alcohol, etc. if he did not want us to use it?” Or, “God made me this way.” James had just made the point that God does not tempt. Now he moves on to state that God does good.
속지 마라(16). 성경은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속아도 속은 줄을 모른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늘날 이와 같은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정한 욕심과 시험의 결과를 갖고 하나님을 비난한다. 다음은 그 예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마리화나, 알코올 같은 것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쓰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야고보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무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언급하고 있다.
- B. God is described as the Father of lights – this simply refers to him as creator of the sun, moon, and stars. As creator, he has from the beginning given us those things that we need – water, light, food, etc.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로 묘사된다. 이는 그가 해, 달, 별의 창조주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물, 빛, 음식 등을 주셨다.
- C.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him. God has given us all the physical things we enjoy (1 Tim. 6:17-19). God has given us all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Eph. 1:3).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물질적인 것을 주셨다(딤후 6:17-19).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엡 1:3).
- D. With him there is no changing. Planetary movements and rotations cause shadows to be constantly changing. But, with God, who created all the heavenly lights, there are no changing shadows. The point is that God is always the same (Mal. 3:6; Ps. 102:26-27; Heb. 13:8). God is always good and will always be good. He will always provide for us that which is good for us (Rom. 8:28).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천체의 움직임과 회전은 끊임없이 변하는 그림자를 만든다. 그러나 하늘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는 하나님은 항상 같으신 분이라는 뜻이다(말 3:6, 시 102:26-27, 히 13:8).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항상 선하신 분이다. 그는 항상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 E. Herein lies the deception: God is always the giver of good things. Temptation to do evil is not good. Thus, God does not tempt us with evil. To blame him is to be deceived. Rather, God is the one who causes us to be reborn to spiritual life.
속임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항상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데, 악을 행하려는 시험은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그것이 바로 속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 F. God causes us to be born again (1:18). This is an example of God’s goodness. We are begotten as God’s children (Jn. 3; 1 Pet. 1:22-25).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1:18).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이다(요 3, 벰전 1:22-25).

1. We are born again **according to God's will**. God wants us to be saved (1 Tim. 2:4; 2 Pet. 3:9). We are born again by **the word of truth**. This refers to the gospel (1 Pet. 1:22-25).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딤후 2:4, 벰후 3:9).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는 복음을 가리킨다(벰전 1:22-25).
2. "First fruits of his creatures." This is a reference to the Old Testament practice of giving to God the first of the harvest (Lev. 23:10). Those Christians to whom James first wrote these things were the beginnings of a great harvest. The spread of the gospel is referred to by Jesus as a harvest (Jn. 4:35).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이것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예법을 가르친다(레 23:10). 야고보가 편지를 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큰 추수의 시작이었다. 예수는 복음이 퍼지는 것을 추수로 비유하셨다(요 4:35).

IV. Controls Temper and Tongue (1:19-20, 26).

성냄과 혀를 다스림

A. Human anger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19-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19-20)

1. Be swift to hear, slow to speak, slow to wrath.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 a. The old preacher used to say, "God gave us two ears and one mouth; that ought to tell us someth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시고 한 입을 주신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 b. We must be willing to listen to others. Listening can often help us avoid conflict. Rather than being quick to speak up, let us take the time to listen. Listening to others and trying to understand them can also help us be slow to become angry with them.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 들음으로 갈등이 종종 해소될 수 있다. 급히 말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을 갖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에게 성내는 것을 더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c. We must not be easily provoked (1 Cor. 13:5; cf. Pro. 15:18; Col. 3:8; Eph. 4:26).
급히 성내지 말아야 한다(고전 13:5, 잠 15:18, 골 3:8, 엡 4:26)
2. Anger often leads to wrong action rather than right action.
성냄은 올바른 행동보다는 종종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
 - a. Contrast the example of Moses (Num. 20:11-12) and the example of Jesus (Mt. 21:12).
모세와 예수의 예를 비교해 보라(민 20:11-12, 마 21:12)
 - b. What was the difference? First of all, it does not say that Jesus was angry. But there is a passage that does say it (Mk. 3:5). One did right and one disobeyed. Anger does not HAVE to cause sin. People who allow anger to control their actions often

behave sinfully. American example: road rage.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수는 화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화를 내신 구절도 있다(막 3:5). 그러나 후자는 올바른 화이지만 전자는 불순종이었다. 성낸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성냄이 자신의 행동을 말기면 종종 죄를 짓은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의 예: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성내는 것

3. Religion that does not control the tongue is empty (1:26). More about one's speech is contained in chapter 3.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은 헛되다(1:26). 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룸

V. Actively Obeys God's Will (1:21-25).

하나님의 뜻에 순종

A. Receive God's word (21).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21).

1. First one must put away evil things. If one is busy doing evil, he has no time to do good. God told Jeremiah that he first must tear down the wrong before he could build up the right (Jer. 1:10; cf. Eph. 4:20-32, Col. 3:1-14).

우리는 먼저 악을 버려야 한다. 악을 행하기 바쁜 사람은 선을 행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을 세우기 전에 악을 반드시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렘 1:10, 엡 4:20-32, 골 3:1-14).

2. One then must be willing to accept God's word (cf. Jn. 7:17; Acts 17:11).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요 7:17, 행 17:11).

- a. This requires meekness. Meekness is not weakness. The word was used to refer to a horse that has been tamed. The horse that has been tamed is no weaker than it was before it was tamed. The difference is that its power has been brought under control. To receive God's word with meekness means that one is willing to be brought under God's control.

여기에는 온유가 필요하다. 온유란 약함이 아니다. 이 단어는 길들인 말을 가리키는 말이다. 길든 말은 길들이기 전보다 약해진 것이 아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말은 힘을 절제할 줄 안다는 점이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둔다는 뜻이다.

- b. Jesus used a parable to demonstrate the different ways people can respond to God's word (Mt.13:1-9, 18-23).

예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마 13:1-9, 18-23).

3. God's word has the power to save souls (Rom. 1:16-17). Note again verse 17, where James wrote that God causes us to be born again by the word of truth. Note also Romans 10:17, Acts 20:32, and John 8:31-32.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롬 1:16-17). 1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기록했다. 로마서 10:17, 행 20:32, 요 8:31-32 참조

B. Do Gods word (22-25)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22-25)

1. The principle – to be a hearer but not a doer is to deceive oneself. How can this be deceptive? Note the following statement:
원리 -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이것이 어떻게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For one thing, people mistake the pleasure they have in hearing the Word of God for Christianity and worship. The mind delights in having the truth presented clearly; the imagination is gratified by its illustration; the feelings are stirred by its application. To an active mind knowledge gives pleasure”

그리스도교와 예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오해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진리가 명확히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설명에 만족해하고, 느낌은 말씀의 적용을 복돋는다. 그러나 실행하는 마음에 지식은 기쁨을 준다.

(Andrew Murray, <https://bible.org/illustration/james-122>, accessed 10- 8- 2020).

2. The illustration – the man who looks into a mirror. What good does it do to look into the mirror and not make any changes? So, to look into Scripture and not make any changes does one no good. The lessons of Scripture ought to change us. The one who allows the teachings of Scripture to change him will be blessed.

사람이 거울을 보고도 변화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고도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성경의 교훈은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성경의 교훈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맡기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 VI. Cares About Others (1:27). The word *episkeptomai* (visit) refers to more than a casual visit. It has to do with relieving the needs of those visited. God has always cared about the welfare of orphans and widows. So, for one’s religion to be pure means that he will take care of orphans and widows.

다른 사람을 돌봄(1:27) 돌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평범한 방문 그 이상이다. 그 돌봄은 방문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의 복지에 관심을 두신다. 그러므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뜻한다.

- VII. Stays Pure (1:27). To be a Christian means that one will keep himself unstained from the world. This means that we stay away from sin. It is such a simple statement with huge impact in one’s life.

정결하라(1:27).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True Faith (James 2)

참된 믿음

I. Faith and Prejudice (2:1-13)

믿음과 편견

A. Definition of prejudice (1-3)

편견에 대한 정의

1. The Greek word (*prosopolempsia*) literally means “to receive the face.” It emphasizes that the reception depends on outer appearances. It refers to favoritism or prejudice or partiality.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받는 것”이다. 이는 그것을 받는 자가 겉모습에 의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별과 편견 혹은 편애를 가리킨다.
2. This does not forbid showing honor to those who deserve it.
 - a. Elders are to be 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 paid money as well as shown respect for their work (1 Tim. 5:17; Cf. 1 Th. 5:12-13).
장로는 배나 존경받을 자로 여기라고 했다. 이것은 그들의 사역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사례금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딤후 5:17, 살전 5:12-13).
 - b. Christians are urged to give honor to whom honor is due (Rom. 13:7).
그리스도인은 존경할 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했다(롬 13:7)
 - c. But this is a different matter than showing favoritism on the basis of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race, gender, financial status, political clout, etc.
그러나 이것은 외적 환경 이를테면 인종, 성, 재정상태, 정치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한 편애와는 다른 것이다.
 - 1) To respect those who have earned respect is a far different matter than being prejudiced.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은 편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 2) “Prejudice” comes from the concept of “pre-judging” people. It is the idea of judging people as worthy or unworthy based upon what they look like, or where they come from, etc. The idea of judging people is not altogether wrong. Unjust judging is wrong (Jn. 7:24); and prejudging is wrong.
편견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사람의 외적 모습이나 배경에서 가치 유무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모든 판단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이 나쁜 것이다(요 7:24).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3. James illustrated his point by making reference to the distinctions sometimes made between rich men and poor men. If a man comes in so dressed that it is obvious he is rich, do you give him a good seat? If a man comes in so dressed that it is obvious he is poor, do you try to hide him?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the usher in your local church, and this very situation happened? Would you make a difference in where you would seat the two men?
야고보는 종종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 점을 설명했다. 사람이 잘 차려입고 들어오면 부자라고 생각해 좋은 자리를 줄 것인가? 어떤 이는 남루하게

차려입고 들어오면 가난하다고 생각해 그를 감추려고 할 것인가? 당신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자리를 앉게 할 것인가?

B. Effects of prejudice (4-11):

편견의 영향(4-11)

1. It makes you “Judges of evil thoughts.”
 그것은 당신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 a. Consider what is meant if I refer to a jar of grape jelly.
 내가 포도 젤리 병을 가리킨다면 그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라.
 - 1) The phrase “of grape jelly” refers to what is in the jar.
 “포도 젤리”라는 단어는 병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 2) In this case, “of evil thoughts” refers to what is in the judges.
 여기서 “악한 생각”은 판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가리킨다.
 - b. If you show favoritism, you are a judge full of evil thoughts.
 만약 당신이 편애를 보여준다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c. Question for self-reflection: What kind of evil thoughts lead to prejudice? Put another way, why would one show partiality to those who are rich? Is it a good motive, or a selfish one?
 자신을 돌아봄: 어떤 악한 생각이 선입견으로 인도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왜 부자를 편애하는가? 선한 동기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로 그렇게 하는가?
2. It makes you opposed to God (5-7)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5-7)
 - a. God chose the poor to be rich in faith (cf. 1 Cor. 1:26). God chooses through the gospel (2 Th. 2:13-14). The answer of faithful obedience is the key. More poor people respond and grow in faith than rich people. This does not exclude the rich, but it is a simple truth that rich people tend to trust in their money and not in God and his word. Thus the poor are more likely to obey and study – which creates growth.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케 하셨다(고전 1:26).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선택하신다(살후 2:13-14). 신실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열쇠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더 잘 응답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자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순종하고 공부하며, 그를 통해 성장하게 된다.
 - b. But you have despised the poor. James went on to point out how senseless it was for them to show partiality to the rich. After all, it was the rich who were oppressing them and blaspheming the name of Christ.
 그런데 네가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 야고보는 그들이 부자를 편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성 모독한다.
3. It makes you a transgressor of the law (8-11)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8-11)
 - a. Understand the royal law –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v. 8; cf. Mt. 22:39). It is called “royal” or “kingly” perhaps

because:

최고의 법을 이해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8, 마 22:39). 이를 가르쳐 최고의 법이라 부른다.

1) It is the king of all laws – the summary of how we should treat others.

그 법은 모든 법 중 가운데 최고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2) It is a law of the kingdom of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법이다.

3) It originated with the King himself – Christ.

그 법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나왔다.

b. The sense here seems to be that those who were thus showing favoritism toward the rich were justifying their actions by reference to this command.

여기서 부자에게 편애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이 법을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하다.

c. James noted that it is good to follow this law, but it is not what they were doing. He then taught that if you show partiality, you commit sin. The very law they were quoting to support their activity is the law that condemned them. To show partiality is NOT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y had despised, not loved, the poor. And, thus, they had become transgressors of the law.

야고보는 이 법을 따르는 것이 선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편애를 보여준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 했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한 바로 그 법이 그들을 정죄했다. 편애를 보여주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가난한 자를 속였고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범법자가 되었다.

d. Violating one point of law makes you a transgressor of the law. He illustrated this from the Law of Moses. You may keep all other laws, but if you reject one, you are a transgressor of the law as a whole.

법 하나를 어기면 전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 야고보는 이것을 모세의 율법을 들어 설명했다. 온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면 어기면 전체 법을 어기는 것이다.

C. Solution to prejudice – one's actions must be guided by the law of liberty – the gospel (12-13).

편견에 대한 해결책 - 우리는 자유 하는 율법 곧 복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 The law of liberty is the gospel. The gospel is law (Gal. 6:2). It is what gives liberty from sin (Rom. 8:1-2; Gal. 5:1).

자유는 법은 복음이다. 복음은 법이다(갈 6:2).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법이다(롬 8:1-2, 갈 5:1).

2. One must live according to this law, or else be a lawbreaker. Partiality makes one a law breaker.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편애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3. Those who show no mercy will receive no mercy (v.13).

공휼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공휼을 받지 못한다(13).

a. Mercy has to do with having pity, or compassion, on others in their difficulties (LH. 10:25-37; Mt. 18:21-35).

금휼은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다(눅 10:25-37, 마 18:21-35).

- b. If we fail to have such mercy on others, neither will Jesus have mercy on us at the Judgment Day.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금휼을 하지 않으면 예수도 심판날에 우리에게 금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3.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13). On the great Judgment Day, receiving God's mercy is far better than receiving justice.
금휼은 심판을 이긴다(13). 큰 심판날에 하나님의 금휼은 공의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II. Faith and Obedience (2:14-26). Faith is central to the gospel (cf. Heb. 11:6; Eph. 2:8). But not all faith can save. James explains different kinds of faith.

믿음은 순종이다(2:14-26). 믿음은 복음의 중심이다(히 11:6, 엡 2:8).

A. Dead faith (vv. 14-18)

죽은 믿음(14-18)

1. The key is on the word "say." Anyone can SAY he has faith. The thing that matters is whether one's faith leads to action.
여기서 핵심은 "말하다"이다. 누구라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2. Illustration (vv.15-16). SAYING to the hungry and cold to be warmed and filled is useless. Actually taking the steps necessary to give them food and clothes makes a difference.
예화(15-16) 굶주리고 추워하는 사람에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행동은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주는 것이다.
3. Again, in verse 18, the emphasis is on what one SAYS.
1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다"를 강조하고 있다.
4. Just like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so faith without works is also dead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26).

B. Demonic faith (vv. 19-20)

마귀의 믿음(19-20)

1. It is a good thing to believe in the one God. But that such a thing is not enough is evidenced by the demons. They also believe in one God. They know that he is real. But they are lost.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마귀를 통해 증명된다.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도 한 분이 실재하심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2. One difference is that they that they are not driven to obedience by their "faith."
한 가지 차이점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점이다.
3. Faith involves more than believing God exists (cf. Heb. 11:6).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한다(히 11:6).

C. Dynamic faith (vv.21-26).

행함이 있는 믿음(21-26).

1. The kind of faith that saves is an active faith.
이런 믿음이 구원하는데 그것은 행하는 믿음이다.
2. Two illustrations are given.
두 가지 예.

- a. Abraham was counted righteous because of faith (v. 23; Gen. 15:6). But, Abraham's faith was not complete until it led him to obedience. The event mentioned by James was the time when Abraham was willing to sacrifice Isaac (21; Gen. 22). This act by Abraham demonstrated his faith (Heb. 11:17-19). This active faith is also given as the reason that Abraham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23; 2 Chr. 20:7; Is. 41:8).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23, 창 15:6).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순종하기까지는 완전하지 않았다. 야고보가 언급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다(21, 창 22).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히 11:17-19).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로 주어졌다(23, 대하 20:7, 사 41:8).
- b. Rahab the harlot was also justified by works (v. 25). She expressed belief in the one true God after hearing about the things he had done for Israel. She then acted upon that faith by helping the spies (Josh. 2:1-21; Heb. 11:31).
기생 라합 역시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25).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듣고 난 후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후 정탐꾼들을 돕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다(수 2:1-21, 히 12:31).
3. The point is that faith that pleases God is a faith that obeys God.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점이다.

III. Controversies connected to James 2:14-26

야고보서 2:14-26 에 따르는 논쟁

A. Faith only teaching

믿음으로만이라고 가르치는 것

1. Some argue that people are saved by faith only. The reject that baptism is essential for salvation and argue that one is saved at the point of belief.
믿음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례가 구원에 필수라는 점을 부정하고 사람이 믿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 The only time the Bible ever mentions faith only, it says that one is NOT justified by faith only (24). In fact, the Bible nowhere says that humans are saved by any one thing.
성경에서 "믿음으로만"이라고 딱 한 번 언급한 곳이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24).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은 딱 한 가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3. One is saved by grace (Eph. 2), but not grace only. God's grace is extended to all, but not all are saved.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엤후 2). 그러나 은혜만으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4. One is saved by faith (Jn. 3:16), but not faith only. James mentioned that even demons believe.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요 3:16).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야고보는 마귀도 믿는다고 했다.

B. Conflict with Romans 4 and Ephesians 2

로마서 4장과 에베소서 2장의 대립

1. Paul wrote that salv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and he explicitly

stated that it was not by works. How can this fit with James 2?

바울은 구원은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받는다고 기록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구절과 야고보서 2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2. There are two things that must be noted in studying these three passages.

이 세 구절을 연구하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 a. But, one cannot by obedience earn or merit salvation. It still depends upon Jesus' death upon the cross. Works mentioned by James are not meritorious works whereby one earns salvation. He defines saving faith as a faith that obeys God.

사람은 순종으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이루지 못한다. 여전히 예수 십자가 죽음을 의지해야 한다. 야고보는 행함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 b. In both Romans and Ephesians, Paul is explaining that the works of the Law of Moses cannot save anyone. Both Jews and Gentiles are saved the same way – by the faith of the gospel. Paul is arguing which system saves. It is the gospel of Jesus and not the Law of Moses that saves. James is defining what the faith of the gospel looks like.

로마서와 에베소서 두 군데에서 바울은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행하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복음의 믿음에 의해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 얻는다.

3. Note that even Paul went on to point out that we are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Eph. 2:10).

바울조차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살펴보라(엡 2:10).

True Speech (James 3:1-12)

참된 말 (3:1-12)

I. Warning to Aspiring Teachers (3:1)

야심적인 선생에 대한 경고

A. Not many should become teachers (1).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1)

1. Those who teach will receive a stricter judgment.

가르치는 자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a. Note Luke 12:48 – to whom much is given much shall be required. The position of teaching carries great responsibility (cf. also the parable of the talents).

누가복음 12:48 참조 -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됨. 선생의 위치는 큰 책임감을 따른다.

b. There is the danger of misleading people. Teachers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what they teach. This is further explained in the following discussion about the power of the tongue and the dangers of wrong speech.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위험이 있다. 선생님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후에 혀의 힘과 잘못 말하는 것의 위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2. This is not a prohibition against being teachers; it is simply a warning about doing it for the wrong reasons or doing it lightly.

이는 선생이 되지 마라는 금지가 아니다. 단지 잘못된 논리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II. Speech and Maturity (3:2-12). Control of the tongue indicates that one is complete or mature or full grown (2). James indicates that the tongue is the hardest part of the anatomy to control. If one reaches the point where he can control his tongue, he can also control his whole body.

말과 성숙(3:2-12). 혀를 제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거나 온전히 성숙했음을 나타낸다(2). 야고보는 혀가 가장 제어하기 힘든 부분임을 보여준다. 만약 사람이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인체의 다른 모든 부분도 제어할 수 있다.

III. The Power of Speech (3:3-6)

말의 능력(3:3-6)

A. It is compared to bits in horses mouths (3) and rudders on ships (4).

Each is tiny compared to the whole, but controls where they go. So is the tongue tiny compared to the whole body, but has control over the direction of one's life.

여기서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를 비교하고 한다. 전체에 비교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사람의 인생 방향을 제어하고 있다.

B. It is compared to a small spark which creates a large fire (5). The Chicago fire that destroyed vast areas of the city is rumored to have started when Mrs. O'Leary's cow kicked over a lantern. So, life-long reputations, or families, or entire congregations can be destroyed with one loose tongue.

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도 비교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큰불이 오리우리 부인의 소가 작은 등잔불을 발로 찬 데서 비롯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렇듯, 평생 쌓은 명성, 가족, 교회도 하나의 혀를 잘못 놀려 파괴될 수도 있다.

- C. The tongue is a world of unrighteousness; it defiles the whole body; it sets on fire the whole course of life (circle or cycle of life). The whole of a person, and his life, falls victim to the destruction of an uncontrolled tongue.
혀는 불의의 세계이다. 이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불살라버릴 수 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한 사람의 전 생애와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 D. The comparison to fire is interesting. A raging, out of control fire does so much damage – and so does a raging, out of control tongue. (Prov. 26:18-25; Mt. 12:34-37; Rom. 1:29-30; Eph. 4:29; 5:4).
혀를 불과 비교한 점이 흥미롭다. 제어되지 못한 불은 큰 피해를 준다. 혀를 제어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이다(잠 25:18-25, 마 12:34-37, 롬 1:29-30, 엡 4:29, 5:4).

IV. Difficulty of Taming the Tongue (3:7-8)

혀를 길들이기 어려움 (3:7-8)

- A. Man can tame all kinds of wild animals.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man has domesticated these animals, but simply that he has dominion over them – he can control them.
사람은 모든 종류의 야생동물을 길들이 수 있다. 이는 사람이 모든 동물을 가축화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림을 뜻한다. 사람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
- B. But, he cannot tame the tongue. Even the most mature of Christians, who almost never lose control of their tongues, can at an unguarded moment, allow angry, hurtful, or gossiping words to slip out.
그러나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자기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주의하므로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험담하는 말을 내뱉게 된다.
- C. The tongue is full of deadly poison – there is no way to estimate the amount of damage and hurt the tongue can cause. Young Christians have given up because of an unkind word from older Christians.
혀는 악독함이 가득한 것이다. 혀로 인해 빚어지는 파괴와 상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연륜 많은 그리스도인의 불친절한 말로 인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기도 한다.
- D. A peasant went to the local minister to seek counsel. He had spoken a hurtful lie about another. He was ordered to take place one feather on each doorstep in the town and then return to the minister. He did this, and the minister told him to return and gather up all those feathers. The man objecte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many of the feathers would have blown away in the wind already. The minister then told him that was the point. Once you say an unkind or wrong thing, you cannot take it back.
어느 시골 농부가 상담을 받기 위해 전도자를 찾아갔다. 그 농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전도자는 그에게 그 동네 사람의 집 문 앞에 깃털을 하나씩 놓고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했다. 농부가 그대로 하자 전도자는 그에게 이번에는 그 깃털들을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깃털이 이미 많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으므로 그 농부는 모든 깃털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그 농부에 대한 전도자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가 불친절한 말을 한번 내뱉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 E. It is not only an unkind word spoken that hurts – also kind words left unspoken can do damage.
불친절한 말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은(말하지 않은) 친절한 말도 상처를 입힌다.

VI. Dangers of Inconsistent Speech (3:9-12). One must not praise God and then curse people, since peopl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For a Christian to curse people is just as out of character as a fresh water spring producing salt water or a fig tree producing olives or a grapevine producing figs or a sea producing fresh water.

일관성 없는 말의 위험(3:9-12).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샘물이 짎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유를 낼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바다가 샘물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True Wisdom (James 3:13-4:17)

참된 지혜(3:13-4:17)

I. Heavenly Wisdom Versus Earthly Wisdom (3:13-18)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 A. Wisdom shows up in meekness and good conduct (13). This follows the discussion of right speech partly because right speech comes from the right kind of wisdom. James then described two kinds of wisdom.
의지혜는 온유와 선행 가운데 나타난다(13). 여기에는 바른 말에 대한 논의가 따른다. 왜냐하면, 바른 말은 바른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 언급한다.

B. Earthly wisdom (14-16)

땅 위의 지혜

1. Earthly (*epigeios*) means that it is of human origin rather than divine origin. Sensual (*psuchikos*) means that it follows the senses rather than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Demonic (*daimoniodes*) means that it is the kind of wisdom followed by the demons.

땅 위의 - 하나님께 유래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뜻이다.

정욕의(sensual) - 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감각을 따라 나온다는 뜻이다.

귀신의(demonic) - 이는 마귀를 따라 난 지혜라는 뜻이다.

2. This wisdom follows bitter jealousy. Jealousy (*zelos*) can be a good thing (Jn. 2:17; 2 Cor. 11:1; Ex. 34:14) or a bad thing (Acts 5:17-18; 13:44-45). Here it is modified by “bitter” indicating that it is jealousy in a bad sense. 이같은 지혜에는 독한 시기가 따른다. 시기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2:17, 고후 11:1, 출 34:14) 혹은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행 5:17-18, 13:44-45). 여기서 “독한”이라고 한정된 점은 그것이 나쁜 종류의 시기임을 가리킨다.
3. This wisdom follows selfish ambition (*eritheia*). This seems to be the trait that wants to advance self above all other considerations. Thus it often leads to strife and division.
이 지혜는 이기적인 야심이 따른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고려보다도 자신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4. These two worldly characteristics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lead to disorder and all kinds of evil practices.
의이같은 세상적인 특성(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은 무질서와 모든 악한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

C. Heavenly wisdom (17-18). This wisdom from above is described with the following traits.

하늘의 지혜(17-18).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1. *First pure*. “Pure” means it is uncontaminated or unstained. It is the same word used to refer to religion that is unstained from the world (1:27). Al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purity is first in order of importance with heavenly wisdom. For example, one is not to sacrifice purity in order to have peace, even though peace is a desired trait.
첫째, 성결하다. “성결”은 오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경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2. *Peaceable*. Jesus pronounced blessing on the peacemakers (Mt. 5:9). Peter quoted Psalm 34 which urges people to pursue peace in order to

have a good life (1 Pet. 3:11).

화평하고. 예수는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5:9).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여 사람들이 선한 삶을 위해 화평을 따르라고 했다(벧전 3:11).

3. Gentle. This appears to refer to being mild and reasonable rather than harsh or unfair.

관용하고. 이것은 부드러운 엄하고 부당하기 보다는 부드럽고 이성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4. Open to reason. This seems to mean that one is approachable; that one is open-minded enough to listen to others.

양순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다.

5. Full of mercy. Scripture emphasizes how important it is to be merciful (Mt. 5:7; Jas. 2:13). This is not just a little mercy, however. Heavenly wisdom leads one to be full of mercy.

공휼이 가득함. 성경은 공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마 5:7, 야 2:13). 이것은 그저 자비만을 뜻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사람을 공휼이 가득하도록 이끈다.

6. Full of good fruits. One is known by his fruit (Mt. 12:33). Heavenly wisdom leads one to be full of good fruits.

선한 열매가 가득함.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마 12:33).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가득 맺도록 인도한다.

7. Without partiality. James already pointed out the sinfulness of partiality (2:1-13).

편견이 없음. 야고보는 이미 편견이 죄임을 지적했다(2:1-13).

8. Sincere. The word used here (*anupokritos*) literally means “without hypocrisy.” One’s Christian character is to be real and genuine rather than an act.

거짓이 없음.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선이 없음”을 뜻한다. 그리스도인은 연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실로 순수하게 행동해야 한다.

II. Worldliness defined (5)

세속에 대한 정의

A. Difficulty of the verse

어려운 구절

1. A comparison of various English translations illustrates the ambiguity of the statement.

여러 영문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이 구절의 애매모호함을 볼 수 있다.

- a. “The spirit that dwelleth in us lusteth to envy” (KJV). This means that our human spirit desires to the point of envy.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영이 시기하며 열망한다.”(KJV) 이는 사람의 영이 시기하는 데까지 원한다는 뜻이다.

- b. “He yearns jealously over the spirit that he has made to dwell in us” (ESV). This means that God desires our human spirit which he put in us.

“그가 우리 속에 거하도록 만든 영을 시기하며 원하신다.”(ESV).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사람의 영을 원하신다는 뜻이다.

- c. “The Spirit who dwells in us yearns jealously” (NKJV). This means that the Holy Spirit who dwells in us desires.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며 갈망하신다”(NKJV). 이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원하신다는 뜻이다.

- d. “He jealously desires the Spirit which He has made to dwell in us” (NASB). This means that God desires the Holy Spirit which he put in us.

“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며 갈망하신다”(NASV). 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원하신다는 뜻이다.

2. Is the spirit here mentioned the human spirit or the Holy Spirit? The Greek word *pneuma* can mean either.

여기서 언급된 영은 사람의 영인가 성령인가? 여기 나오는 헬라어는 두 가지 모두 의미할 수 있다.

3. Translation of the Greek phrase *pros phthonon epipothei*. Some take *pros phthonon* to be an adverbial phrase, meaning “jealously” (e.g., ESV, NKJV, NASB). Some take it to be an intensifier of the desire (e.g., NIV). Some take it to describe the extent reached by the desire (e.g., KJV).
여기 나오는 헬라어 구절은 부사구로 “시기하도록”이라는 뜻이다(ESV, NKJV, NASV). 이는 그 간절함이 확장되었음을 묘사한다(KJV).

- a. Desire (*epipothei*)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It is used in the New Testament to refer to a good desire (e.g., 2 Cor. 5:2; 1 Pet. 2:2). It is when our earthly desires control us that we end up living worldly lives (cf. 1 Jn. 2:15-17).

갈망(desire)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선한 갈망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했다(고후 5:2, 벰전 2:2). 그러나 땅 위의 갈망이 우리를 제어하면 세속적인 삶으로 귀결된다(요일 2:15-17).

- b. The key in this passage is the use of the word *phthonos*. This word occurs nine times in the New Testament (Mt. 27:18; Mk. 15:10; Rom. 1:29; Gal. 5:21; Php. 1:15; 1 Tim. 6:4; Tit. 3:3; Jas. 4:5; 1 Pet. 2:1). Each time it refers to a sinful trait. The cognate verb *phthoneo* occurs once (Gal. 5:26), and it is also a sinful behavior. I do not believe that God would be guilty of this trait. Thus, I am convinced that James intended to write that our human spirits desire to the point of envy.

이 구절의 핵심은 *phthonos* 단어이다. 신약성경에 아홉 번 나온다(마 27:18, 막 15:10, 롬 1:29, 갈 5:21, 빌 1:15, 딤후 3:3, 약 4:5, 벰전 2:1). 이 단어는 매번 죄된 특성을 가리킨다.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 *phthoneo* 한 번 나온다(갈 5:26). 그 단어 또한 죄된 행동을 뜻한다. 필자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 구절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야고보가 우리 인간의 영이 시기할만큼 갈망한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의도했다고 확신한다.

- c. The point is that when we allow our human desire to control us, it leads us to the sinful behavior of envy.

이 구절의 핵심은 사람의 욕망이 우리를 제어하게 하면 시기의 죄악된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하한다는 것이다.

- B. The point of the verse, in context, seems to be that when we allow our human desires to control us, we end up living in envy. Envy is evil, and causes a journey deeper into sinful behavior. Being thus controlled by one's desires is worldliness (cf. 1 Jn. 2:15-17).

여기 나오는 절과 문맥은 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제어하도록 방치하면 결국은 시기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듯하다. 시기는 악한 것으로 최악의 행동으로 깊이 빠지게 만든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요 2:15-17).

III. Effects of Worldliness (4:1-4)

세속화의 영향

Worldliness causes strife (1-2).

세속화는 반목의 원인(1-2)

A.

1. This strife is referred to as “quarrels” and “fights.” The terminology is from warfare. Our own lives become the battleground for this struggle (1 Pet. 2:11; Rom. 7:15-25).
여기서 반목은 “다툼”이나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용어는 전쟁에서 나왔다. 우리의 삶이 이 같은 투쟁의 전쟁터가 되었다(벧전 2:11, 롬 7:15-25).
2. This struggle, this warfare, exists because of desires out of control. The intense desire for things or pleasures drive us to unhappiness. We focus on what we do not have. We then plan and scheme to acquire those things. This leads to the mistreatment of others in order to acquire what we want. 이 분투와 싸움은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다. 물질과 쾌락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욕망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친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들을 얻고자 계획할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잘못 대하게 만든다.

B. Worldliness causes an abuse of prayer (2-3).

세속화는 기도를 오용하게 만든다

1. Scheming, cheating, stealing, etc., is not the way to get what you need. James told them that they did not have because they did not ask. 교활, 속임, 강탈 등은 우리가 뭔가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 야고보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 But, when they did ask, they still were not getting what they wanted. They were praying for things in order to satisfy their worldly passions. These were not things they needed for survival. These were not things they wanted in order to be better servants. These were things they wanted to satisfy a lifestyle focused on earthly pleasure (*hedone*, verses 1 and 3, cf. Lk. 8:14; Tit. 3:3).
그러나 그들이 구할 때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을 구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다. 더 나은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아니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생활방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4:1-2, 눅 8:14, 딤후 3:3)
3. God never promises to give us our petitions which have to do with envy and earthly pleasure.
하나님은 우리가 부러워하며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C. Worldliness causes enmity with God (4).

세속화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

1. Those caught up in worldliness are called adulterers. Spiritual adultery is the point. This was a concept used in the Old Testament to refer to idolatry (Ex. 34:15-16; Hosea). Worldliness is actually a form of idolatry – one is putting the satisfaction of his desires in front of his service to God.

세상과 벗 된 것은 간음으로 부르 수 있다. 여기서는 영적 간음에 초점이 맞춰 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가 이념 개념으로 사용되었다(출 34:15-16, 호세아) 세속화는 사실상 우상숭배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구에 대한 만족을 갖다 놓는 것이다.

2. To be a friend with the world (worldliness) is to be the enemy of God (cf. Jn. 15:18-20).
세상과 벗 된 것(세속화)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요 15:18-20).

IV. How to Defeat Worldliness (4:6-17).

세속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A. Recognize God's grace (6). It is true that desire can take control of you, but God offers the way out (cf. 1 Cor. 10:13). God, by grace, sent Jesus to die on the cross to forgive you; and by grace provided the gospel message to change you (Tit. 2:11-14; Acts 20:32). God and his grace can be your strength in fighting worldliness. God will forgive you for sinning, and he will build you up in your faith.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6). 욕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줄을 주신다(고전 10:13).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 주셨다. 복음이 주는 이 은혜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딤후 2:11-14, 행 20:32). 하나님과 그의 은혜는 세속화와 싸우는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 B. Submit to God (7,10).

1. Submit (*hupotasso*, v. 7) means "to arrange under." It is the idea of putting yourself under God's authority.

하나님께 순복하라(7절) 이는 "그 아래 자신을 놓으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다.

2. Humble self (*tapeinoō*, v. 10) means to bring yourself low – the opposite of lifting yourself up in pride. Verse 6 indicates God gives grace to those who are humble (*tapeinos*). If you humble yourself, God will lift you up. If you lift yourself in pride, God will bring you down (cf. Mt. 23:12).

자신을 낮춘다(10절)는 것은 자신을 아래로 가져온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과는 반대이다. 6절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해준다.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마 23:12).

- C. Resist the Devil (7). Do not give in easily to your urges. Develop strength in saying no to temptation. Better knowledge of Scripture helps with this effort (Mt. 4:1-10; Ps. 119:11).

마귀를 대적하라(7절). 자신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면 안된다. 시험에 안된다는 말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성경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은 이와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된다(마 4:1-10, 시 119:11).

- D. Draw near to God (8). Seek to be close to God. Put relationship with him above all else.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구하라. 다른 어떤 것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

- E. Cleanse your hands (8). This means you stop doing sinful things. The hands can be used symbolically for what you do with your whole body.

손을 깨끗이 하라(8절) 이는 죄 된 일 행하기를 멈추라는 뜻이다. 손은 우리 온 몸으로 하는 것을 상징적용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 F. Purify your hearts (8). Make sure your thinking and your desires are under God's control. Our behavior and our words start in the inner part of us (Prov. 23:7; Mt. 12:34-37; 15:19-20).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8절).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라. 우리의 행동과 말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잠 23:7, 마 12:34-37, 15:19-20)
- G. Be truly sorry over sin (9). Paul contrasted worldly sorry and godly sorrow (1 Cor. 7:10). Worldly sorrow is when one is sorry that he got caught doing wrong. This does not cause him to stop doing wrong – it might only cause him to try to find a more effective way to hide it. Godly sorrow is when one is sorry that he did the wrong thing. This will cause him to determine to stop doing the wrong thing.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아다(9절). 바울은 세상적인 슬픔과 경건한 슬픔을 대조했다(고전 7:10). 세상적인 슬픔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 붙잡혔을 때 하는 것이다. 이런 슬픔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그만 두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이 하는 나쁜 행동을 숨기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게 할 수 있다. 경건한 슬픔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슬퍼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슬픔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그만두게 하는 동기가 된다.
- H. Avoid slander (11-12). Speaking evil of another is the same as judging him. After all to say bad things about him means that you have judged him and found him guilty. James equated this with speaking evil of the law and judging the law. God's law requires love for one another (Jn. 13:34-35) and forbids slandering one another (Eph. 4:31; 1 Pet. 2:1). Thus, to speak against a brother is to break the law. This, in effect, is to judge the law unworthy of obedience. If you are a judge of the law, then you are not a doer of the law. Only God is judge.
비방하지 마라(11-12절)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 그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를 판단하고 나쁘다고 정죄했음을 뜻한다. 야고보는 이를 가리켜 그런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요 13:34-35).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것을 금하신다(엡 4:31, 벰전 2:1).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는 율법을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이다. 우리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다.
- I. Include God in all your plans (13-16). Life is uncertain. You do not know what tomorrow may bring. Life is short, like a vapor (cf. Job. 7:6-10). No one has reason to boast, since all we have is a gift from God. Some separate their religion from other aspects of life (cf. Lk. 12:16-21). When you make plans, be sure to include God in those plans. "If the Lord wills" is more than just an expression to utter; it is an attitude toward life (cf. Jn. 6:38; Lk. 22:42; Acts 18:21). Including God in everything helps one to stay away from a worldly lifestyle.
너희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우선 하라(13-16절). 인생은 불확실하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인생은 안개처럼 짧다고 했다(욥 7:6-10).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무로 주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믿음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다(눅 12:16-21).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그 계획에 모셔야 한다. "주의 뜻이면"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요 6:38, 눅 22:42, 행 18:21). 모든 일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며(포함하면) 세속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 J. Do what you know to be right (17). It is not enough to KNOW the right thing to do, one must DO that right thing. The busier you are doing what is right, the less time you have to do wrong.
선한 일을 행하라(17절) 선한 일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좋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좋은 일을 하는 데 바쁠수록 나쁜 일을 하는 시간은 적어질 것이다.

True Patience (James 5)

참된 인내 (5 장)

I. Prophetic condemnation of the rich (5:1-6)

부한 자들에 대한 경죄(5:1-6)

A. At first, this section seems disconnected from the rest of the book. All the way through the letter, James addressed the recipients as “brethren,” but he did not do so in this section. The rest of the letter is filled with practical instruction for proper living, but this section seems to be only a strict condemnation of those addressed. An Old Testament background becomes helpful in understanding this section.

언뜻 이 부분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지않는 것처럼 보인다. 본 서신 전반에 걸쳐 야고보는 수신자를 형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본 서신의 나머지 부분은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인데, 이 부분은 엄한 경죄가 언급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구약의 배경이 중요하다.

1. The Old Testament prophets often addressed Israel’s enemies in their prophecies (cf. Amos 1:3, 6, 9, 11, 13; 2:1; Is. 13:1).

구약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에서 종종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언급을 했다(암 1:3,6,9,11,13, 사 13:1).

2. Those things were not intended for the ears of Israel’s enemies, but for the Israelites. The point of the prophecies was to encourage the Israelites. They were being oppressed by those enemies (or would be oppressed by them in the future). God was letting them know that their enemies would suffer for what they did in oppressing Israel. Thus, the message was intended as a comfort to the Israelites – they would not be oppressed forever.

그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라고 한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혹은 그들이 미래에 그들의 압제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 때문에 나중에 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압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3. The rich men did oppress the Christians who were suffering for their faith – those Jewish oppressors would pay for their wrongs.

부자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했다. 그렇게 압제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B. Description of the rich

부한 자들에 대한 묘사

1. They have plenty of financial resources.

그들에게는 재정적 자원이 많았다.

a. They are designated as rich (1-2).

그들을 부한자들이었음

b. They evidently have an abundance of clothing (2).

옷도 많았음

c. They are said to have gold and silver (3).

금과 은도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d. They have hired servants (4).

품꾼들을 두고 있었음

2. They are cruel and fraudulent. They have refused to pay those who worked for them (4). Notice that the wages that were held back cry out to heaven. “Cry” here means to yell, not to weep. This is reminiscent of Abel’s blood crying out to God from the ground. Also those who had been defrauded cry out to heaven. God knows about and is sympathetic to the mistreatment of the poor. These cries have entered into the ears of the Lord. The Lord is described as the “Lord of hosts.” Hosts means armies. He has armies of angels at his disposal.
그들은 잔인하고 부정직하다. 자신들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4). 여기서 그들이 받지 못한 삯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한 것을 주의해보라.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외치고 있다. 이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친 것을 연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빼앗긴 자들이 하늘을 향해 소리치르고 있다. 그들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 여기서 주님을 “만군의 주”로 묘사하고 있다. 만군은 군대를 뜻한다. 그는 천사 군대를 두고 계신다.
 3. They are worldly. They are concerned with heaping together worldly treasures (3). They are concerned with satisfying their physical desires (5). 그들은 세속적이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 재물을 높이 쌓는 것이었다(3).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5).
 4. They condemned and killed the righteous one (v. 6).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했다(6).
 - a. Some suggest that this refers to Jesus. The wealthy, elite Jews were the ones who managed to have Jesus killed, and now they are oppressing those who follow Jesus.
더러는 여기 나오는 의인이 예수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다.
 - b. Some suggest that this simply refers to righteous people in general – that the rich men hurt righteous people.
더러는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으로 의로운 사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해친다.
- C. They will be punished.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1. They are urged to weep and howl, because their miseries will be so great (1). 그들은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1).
 2. Their riches are temporary and will cease to exist (2-3). Their garments will end up moth-eaten. Their gold and silver will rust (silver will corrode and gold will tarnish, but ultimately they will both cease to exist). 그들의 부는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이다(2-3). 그들의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했다(은은 부식하고 금은 변색된다. 그러나 결국은 둘 다 없어질 것이다).
 3. Also, those same riches will be their downfall (3). “Corrosion” (*ios*) can also mean “poison,” like the venom of a snake. Their riches have poisoned them. Money is not sinful, but one’s attitude toward money can corrupt his life (1 Tim. 6:10). 또, 그 부자들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3). “녹슬다”는 독사의 독처럼 “독”이 있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들의 부가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 돈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타락시켰다(딤후 6:10).

4. Let us be careful what we lay up as treasure for the last day (3, cf. Mt. 6:19-21).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마 6:19-21).

II. The Lesson for Christians – Be Patient (5:7-11)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 - 인내하라(5:7-11)

A. Greek words involved.

여기 쓰인 헬라어

1. *Makrothumia*, from *makros* (long) and *thumos* (wrath, temper) – long-tempered instead of short-tempered. (Used twice in verse 7, once in verse 8, and once in verse 10).
makrothumia 는 “긴”, “분노, 기질”의 합성어로 짧은 기질 대신 오래 가는 기질이다. 이 단어는 8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쓰였다.
2. *Hupomone*, which means to remain or stay. Those who are steadfast like Job are blessed. This means that one refuses to quit. (The word occurs twice in verse 11).
Hupomone, 이 단어는 남다 혹은 머무르다는 뜻이다. 옹처럼 끈기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포기하지 않는 자를 뜻한다(이 단어는 11절에 두 번 나온다).

B. The point is, that even though you might suffer at the hands of those who oppose Christianity, do not give up because relief is coming. In this context, the oppression was coming from wealthy Jews.

이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교를 압제하는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구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문맥에서 압제는 부유한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1. “The coming of the Lord” can be taken two ways.
“주님의 오심”은 다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다.
 - a. It could refer to the second coming, which will bring relief to all faithful Christians.
재림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 b. It could refer to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gain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is helpful here. God often spoke of the destruction of a city or an empire in terms of his coming in judgment against them (cf. Is. 19:1). In this passage, based upon our interpretation of the first six verses, it would seem tha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s intended. It marked the end of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by the hands of the Jews. It was a horrible judgment against the Jews for their disobedience.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구약성경의 배경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한 도시의 멸망이나 제국의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날에 오실 것이라고 했다(사 19:1). 첫 6절의 해석에 기반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손으로 가해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끝이 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다.
2. James gave three examples of patience.
야고보는 인내의 세 가지 예를 보여준다.
 - a. The farmer must wait before he can see the fruits of his labor (7). Anxiety will not cause the harvest to come any quicker. Even so, these Christians must be patient in waiting for their relief.
농부는 그의 수고의 열매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7). 조바심으로

염려한다고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구원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 b. The prophets spoke God's message – often at great peril to themselves. They endured their suffering, patiently serving God (10).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은 종종 그들에게 큰 위험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겼다(10).
 - c. Job, of course, is a prime example of enduring hardship and remaining faithful to God (11). From the story of Job, we can learn that God takes care of those who are his – the ultimate end is one of victory and blessing. This hope is what fuels our patience. 두말 할 것 없이 욥은 고난을 참고 하나님께 신실한 좋은 예이다(11).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그 결국은 승리이고 복이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 준다.
- C. The coming of the Judge (in such a great destruction as that which would be experienced by Jerusalem) is a great motivation for right living. Thus, the admonition to treat each other right in v. 9.
심판이 다가옴은 (예루살렘 멸망 같은 엄청난 파멸 같은 것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커다란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서로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9).

III. Various admonitions (5:12-20)

여러 가지 권면

- A. Do not swear (12). This is not an absolute prohibition against swearing. It is an admonition against a system of swearing whereby some oaths are binding and others are not (Mt. 5:33-37; cf. Lev. 19:12). The truth is that God's people do not need an oath or a signed document to make them keep their word.
맹세하지 마라(12). 이것은 맹세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맹세는 거기에 묶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같은 맹세 시스템에 대한 권면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맹세나 자신의 말에 얽매이는 문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 B. Pray when you are afflicted (13).
고난 중에 기도하라(13).
- C. Sing praises when you are happy (13).
즐거울 때 찬송하라(13).
- D. Call for the elders when you are sick (14-15). This seems to be a reference to the time when miracles were in effect. These elders had the miraculous gift of healing. The pouring of the oil seems to be symbolic (cf. Mk. 6:13). It is the prayer of faith that will save the sick.
병들었을 때 장로를 부르라(14-15) 이는 기적이 아직 이루어질 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 장로들은 기적적인 은사를 갖고 있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상징적이다(막 6:13). 병들 자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다.
- 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16). There is no separate priesthood in the gospel system. Every Christian is a priest (1 Pet. 2:5). So, we are to confess to each other.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16). 복음(신약시대에)는 구분된 제사장 제도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벧전 2:5).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해야 한다.
- F. Pray for each other (16). James does not say that the sickness mentioned was due to sin, but rather says that IF the sick man has sinned, he would be forgiven. For those who are Christians, prayer is powerful. Elijah and his prayers for drought and rain are given as examples of the power of prayer. The point in context is that God will listen when we ask for him to forgive the penitent brother (cf. 1 Jn. 5:16).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16). 야고보는 병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병자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엘리야가 가뭄과 비를 위해 했던 기도는 기도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형제가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G. Work to restore the erring (19-20).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19-20)

1. This implies that it is possible for Christians to sin so as to be lost.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a. The impossibility of apostasy is a major tenet of Calvinism.
 타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의 주요 견해이다.
 - b. Biblical teaching is abundant that one who has been saved can sin so as to be lost (e.g., Acts 8:20-24; Heb. 10:26-31).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친다.
2. Other Christians then have a responsibility to try to bring such a brother to repentance (cf. Gal. 6:1-2). By converting him, we have saved a soul from death. This refers to the second death at Judgment Day (Rev. 20:11-1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게 된다. 그 죽음이란 심판날의 두번째 죽음을 뜻한다(계 20:11-14).

Introduction to 1 Peter

베드로전서 개요

I. Authorship 저자

A. The letter claims Peter the apostle as author (1:1).

본 서신이 저자가 베드로임을 주장한다(1:1)

1. The genuineness of that claim is sometimes questioned. There are those who argue that Peter was not the real author and that someone simply used his name in order to gain authority for the words.

이와 같은 주장이 종종 의문을 받아왔다. 바울이 본 서신의 저자가 아니고 단지 그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그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2. Consequences of this document being counterfeit:

본 서신이 진본이 아니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결과

- a. The letter would not be the inspired word of God. God cannot lie (Heb. 6:18; Tit. 1:2). If Peter was not the author, then that claim is a lie.

그렇다면 본 서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서신이 아니게 된다(히 6:18, 딤후 1:2). 만약 베드로가 본 서신의 저자가 아니라면 베드로가 저자라는 주장이 거짓말이 될 것이다.

- b. The author cannot be trusted. If he would lie about his identity, then he might lie about other matters.

저자를 믿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 하는 자라면 다른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 할 것이기 때문이다.

- c. The author obviously had no authority of his own. Otherwise there would be no reason to “borrow” Peter’s name.

그렇다면 본 서신은 전혀 권위가 없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의 이름을 차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B. Internal evidence – this term is used to refer to information found within the document itself that relates to authorship.

내적 증거- 이 용어는 본 문서 자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저자를 밝힌다는 뜻으로 쓰인다.

1. As noted, the letter claims to have been written by Peter the apostle. This should be accepted unless there are sufficient reasons to reject it.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본 서신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거부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2. Guy N. Woods wrote, “In verse after verse of the book we see vividly portrayed the influence of events in the public ministry of our Lord in which Peter participated, or was present—an influence that could have been obtained in no other way” (*A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Epistles of Peter, John, and Jude*. Nashville, TN: Gospel Advocate Company, 1974. 15).

가이 N. 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본 서신의 매 절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베드로가 그 사건에 참여했거나 현장에 있었으므로 그 영향으로 정보를 얻은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C. External evidence – this term refers to material from other sources that relate to the authorship of this document. All ancient Christian writers who

addressed the subject accepted Peter as the author of this document.

외적 증거 - 이는 본 서신의 저자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고대 그리스도교 모든 기자들은 본 서신의 저자를 베드로로 받아들였다.

D. Some suggest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persecution indicated in the letter did not occur until after Peter's life.

서신에 나타난 당시의 핍박 받는 상황이 베드로의 사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1. The Neronian persecutions, it is suggested, only impacted those who were in Rome. The Asians, to whom 1 Peter was addressed, would not have been impacted by the persecutions of Nero.

네로의 박해, 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베드로전서에서 수신한 아시아인들은 네로의 박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It is argued that the first Roman persecutions that affected Asian Christians were those instigated under Domitian or Trajan – outside the lifetime of Peter.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로마의 첫번째 박해는 도미시안이나 트라잔 황제 때의 일로 베드로 사후의 일이다.

3. There are two problems with this objection.

이를 반박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점

- a. Much of the material in this letter seems to point forward to coming persecution, in order to get the disciples ready for what they were about to face. So, perhaps it was not yet happening in full force when Peter wrote these words.

본 서신의 많은 부분이 다가올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 박해에 대해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본 서신을 쓸 때는 아직 박해가 절정에 달하기 전이다.

- b. Our evidence of the extent of the persecution waged against the early church by the Romans is incomplete. Nero's persecutions MAY have been further-reaching than is thought. At any rate, the Roman persecution would be long-lasting and God would have wanted to provide inspired instruction for them to be able to withstand it.

로마에 의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에 관한 증거를 살펴보면 그것이 아직 끝나기 전이다. 네로의 박해는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로마의 박해는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런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감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셨을 것이다.

E. Notes about Peter

베드로에 대한 정보

1. Peter was brought to Jesus by his brother Andrew (Jn. 1:40-42).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데려 옴
2. Peter was married (Mk. 1:29-30).
결혼함
3. Peter was a fisherman by trade (Mk. 1:16).
직업이 어부임
4. Peter cut off Malchus' ear (Jn. 19:10).
말고의 귀를 자름
5.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Mk. 14:66-72). Since Peter denied Jesus out of fear of reprisal, he is all the more qualified to write a letter

about staying faithful under persecution.

예수를 세 번 부인함

6. Peter preached the sermon that is recorded in Acts 2:14-40.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14-40에 기록됨

7. Peter was the first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Acts 10).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다(행 10).

- II. Date. It is difficult to date ancient documents with any precision. It is reported that Peter died under the Neronian persecution in the mid to late 60s (about 67). So, the letter must have been written prior to that date. Since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came first from Jews and only later from the Romans, this letter must have been written a little later in church history. It seems best to consider it to be written in the early to mid 60s.

저작 연대. 고대 문서의 연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어렵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60년대 후반(약 주후 67년) 네로 박해 당시 죽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서신은 그 보다 앞서 기록되었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로마에 의한 박해는 그 후의 일이므로 본 서신은 초대교회 후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6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고려 될 만하다.

III. Recipients

수신인

- A. The letter is address to those who lived in the Roman provinces of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This sets the geographical region of those who first received this letter.

본 서신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시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로마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본 서신을 처음으로 수신한 지역들이다.

- B. The recipients are called “exiles” (Gk. *parepidemos*), which refers to people who are living some place except their real home. It is connected here with the word “dispersion” (Gk. *diaspora*). This can be taken a few different ways.

이 수신인들을 “흩어진 나그네”(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의 고향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라 부른다.(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It could refer to the Jews who were dispersed under the Assyrian and Babylonian deportations who later became Christians. The term “Diaspora” is used to refer to those displaced Jews. The difficulty with this identification is that the letter seems to be written for an audience made up of both Gentiles and Jews.

이들은 앗수르와 바벨론 침략 시 흩어진 유대인들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데 쓰였다. 그러나 본 서신을 수신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데서 이들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It could refer to those Jewish Christians who were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of fellow Jews, as recorded in Acts 8. James used this word to refer to that group of Christians (Jas. 1:1). The problem with this identification is that it does not seem that those Christians from Acts 8 would have traveled quite this far from home. Also, this seems to be too far removed from that event to include them. Also, this seems to be addressed to Gentiles as well as Jews.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대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도 있다. 야고보도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약 1:1). 그런데 그 당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멀리 흩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므로 이렇게 보는데도 문제가 있기는 하다. 뿐만 아니라

본 서신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It could refer to the truth that Christians are exiles on the earth. This seems to be the point of 1 Peter 2:11. It also fits with the use of this Greek word (*parepidemos*) in Hebrews 11:13. This seems to best fit the content of the letter. One way to withstand the persecutions in this world is to remember that the Christian's homeland is in heaven and not on the earth. We are sojourners here.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유배된 자들이라는 진리를 뜻 가리킬 수 있다. 이점은 베드로전서 2:11과도 뜻이 통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13에 나오는 헬라어 (파레피데모스)와 잘 맞기도 한다. 본 서신의 문맥상 이것이 가장 알맞은 뜻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서 겪는 핍박을 견디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다.

C. The recipients are called “elect” (Gk. *eklektos*).

수신인을 가르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 (헬라어로 에클렉토스).

1. The word means “chosen” (cf. Mt. 22:14; Jn. 15:16, 19). In what sense one is chosen depends upon the context. Peter further explained in what sense the recipients were “chosen.”

이 단어는 “택함 받은”이라는 뜻이다(참조: 마 22:14, 요 15:16, 19). 본문의 문맥상 택함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는 본 서신의 수신인들에게 ‘택함 받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준다.

2.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Foreknowledge (Gk. *prognosis*) simply means to know beforehand. The same word is used in 2 Peter 3:17 to refer to what people can know beforehand. The point here is that Peter is writing to those who were chosen according to God's foreknowledge. God in some sense knew ahead of time that they would be chosen. This causes some difficulty in some religious teachings. Some take this to mean that God has already decided, by name, which people will be saved and which ones will be lost. Scripture does not teach this. The method of God's foreknowledge is not stated in this verse; it is merely noted. God put the plan of salvation into place before creation (Eph. 1:4). The plan was predetermined. So, he already knew that everyone who would obey the gospel would be chosen, and those who would reject the gospel would be excluded.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알다 (헬라어: 프록노시스)는 단순히 미리 안다는 뜻이다. 이와 똑 같은 단어가 사람이 무엇을 미리 알 았는지에 대해 베드로후서 3:17에 쓰였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택함을 받을 것을 미리 아셨다. 이점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았) 누구는 잃어버릴지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택함을 받았다고만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엡 1:4). 그 계획은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게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셨다.

3. “In th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To sanctify means to set apart or to make holy. One is chosen when the Holy Spirit sets him apart, or makes him holy. The Holy Spirit does this sanctifying work through

the word of the gospel (Jn. 17:17; 2 Th. 2:13-14).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다는 구분하다 혹은 거룩하게 만들다는 뜻이다. 택함 받은 사람을 성령이 따로 구분하거나 혹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복음을 통해 하신다(요 17:17, 살후 2:13-14).

4. “For obedience.” When one obeys the gospel, he is sanctified. Further, he is set apart for continued obedience.
”순종함을 위하여.” 사람이 복음에 순종할 때 거룩해 진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구분되어진다.
5.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It is by the blood of Jesus that people are sanctified (Heb. 10:10-14, 29).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사람이 거룩해 지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히 10:10-14, 29).
6. The point is that those who were addressed are the ones who have obeyed the gospel of Jesus, and are therefore the chosen ones of God. This letter is addressed to Christians. Perhaps this way of identifying them could serve as a reminder of who they were as God’s chosen ones. This reminder can help Christians as they face persecution.
그들은 예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본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이 수신인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기는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 IV. Purpose. The main theme of this letter seems to be victory over persecution. The word “suffer” recurs in various forms throughout the letter (e.g., 2:19, 20; 3:14, 17; 4:1, 13, 16, 19; 5:9, 10). This letter seems to be written in order to encourage and empower them to withstand the persecution and remain faithful to God.

목적. 본 서신의 주 주제는 핍박에 대한 승리인 것 같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본 서신을 통해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 나타난다(2:19, 20, 3:14, 17, 4:1, 13, 16, 19, 5:9, 10)

- V. Outline. 1 Peter: Coping with Adversity

요약. 베드로전서: 역경 극복

- A. Opening (1:1-2)
서언
- B. Things You Need to Understand (1:3-2:3)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1:3-2:3)
 1. Your Hope (1:3-5)
너희 소망
 2. Your Suffering (1:6-9)
너희 고난
 3. Old Testament Prophecy (1:10-12)
구약의 예언
 4. Your Responsibilities (1:13-17)
너희의 책임
 5. The Bases of Salvation (1:18-2:3)
구원의 기초
- C. Things You Need to Remember (2:4-3:12)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2:4-3:12)
 1. Who Jesus Is – the Cornerstone (2:4-8)
예수는 누구인가 – 모퉁이 돌 (2:4-8)

2. Who You Are (2:5, 9-12)
너희는 누구인가 (2:5, 9-12)
3. What Your Roles Are (2:13-3:7)
너희의 역할 (2:13-3:7)
4. How to Behave (3:8-12)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3:8-12)
- D. Things You Need to Know (3:13-4:19)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3:13-4:19)
 1. God Is On Your Side (3:12-12)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2. How to Answer Your Challengers (3:14-16)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는 법
 3. Why You Should Be Willing to Suffer for Jesus (3:17-4:6)
예수를 위해 왜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가
 4. How to Live in the Face of Trial (4:7-11)
고난에 직면할 때 살아가는 법
 5. There Is Glory in Suffering for Jesus (4:12-19)
예수를 위한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
- E. Things You Need to Do (5:1-11)
너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1. Elders – Do Your Work (5:1-4)
장로 – 너희 사역을 하라
 2. Younger Ones – Submit to the Elders (5:5)
젊은이들 –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3. All – Be Humble (5:5-6)
모든 사람 – 겸손하라
 4. Lean on the Lord (5:7)
주님을 의지하라
 5. Be Sober and Vigilant (5:8)
근신하고 깨어라
 6. Resist the Devil (5:8-9)
마귀를 대적하라
- F. Conclusion (5:10-11)
결론
- G. Closing (5:12-14)
마무리

1 Peter: Coping with Adversity

베드로전서: 역경 극복

I. Things You Need to Understand (1 Peter 1:3-2:3)

알아야 할 것들 (벧전 1:3-2:3)

A. Your Hope (1:3-5; cf. Rom. 8:24-25; Heb. 6:18-19)

너희 소망(1:3-5, 참조: 롬 8:24-25, 히 6:18-19)

1. Is alive (3). Made so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cf. Heb. 2:14-15; 1 Cor. 15:12-26).
산 소망(3).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짐(참조: 히 2:14-15, 고전 15:12-26)
2. Is an inheritance (4; cf. Rom. 8:17, since we are born again, we are heirs of God)
유업(4, 참조: 롬 8:17,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임)
 - a. Imperishable (*aphthartos*, cf. 1 Cor. 9:25; 15:52) means imperishable, immortal, does not spoil, does not grow old, does not decay. Our earthly, physical bodies grow old and wear out. Our earthly existence will one day come to an end. Our heavenly inheritance will never grow old or end.
썩지 않음(애타토스, 참조: 고전 9:25, 15:52) 이는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손상되지 않고, 늙지 않으며, 낡아지지 않음을 뜻한다. 우리 육적 존재는 언젠가 끝이 온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유업은 절대로 늙거나 끝이 오지 않는다.
 - b. Undefined (*amiantos*, cf. Jas. 1:27; Heb. 7:26) means pure, undefiled, unstained. No sin will be there.
더럽지 않음(아미안토스, 참조: 약 1:27, 히 7:26) 이는 순결하고 더럽지 않으며, 오염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어떤 죄도 거기에는 없다.
 - c. Unfading (*amarantos*, cf. a related word [*amarantinos*] in 1 Pet. 5:4) seems to mean that the glory and beauty of this inheritance will never fade. The colors of new clothes will eventually fade with use and washing. But, the beauty of heaven will never fade over time.
쇠하지 않음 (아마란토스, 참조: 이와 관련된 단어도 벧전 5:4의 '아마란티노스'가 있음) 이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유업이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듯 하다.
 - d. Heavenly. We will go to be with God in heaven (Jn. 14:1-3; Rev. 21:22-23; 22:3-4).
하늘에 간직된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요 14:1-3, 계 21:22-23, 22:3-4).
3. Is provided by God.
하나님이 주심
 - a. Produced by his mercy (3; cf. Lk. 10:37; Mt. 18:23-35). It is the abundance of God's mercy that gives us hope (Tit. 3:5-7).
그의 긍휼에 따라 주심(3, 참조: 눅 10:37, 막 18:23-35)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딤후 3:5-7)
 - b. Preserved by his power (5). No one, even Satan, is more powerful than God. So, no one is strong enough to take away your heavenly inheritance (cf. Jn. 10:28-29; Mt. 12:22-29).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음(5) 어느 누구도, 사탄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는 없다. 우리의 하늘 유업을 빼앗아 갈 만큼 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참조: 요 10:28-29, 마 12:22-29).

4. Hinges on your response.

우리의 반응(소망)에 주어진 경첩(끈)

- a. This hope is only available to those who have been born again (3, cf. Jn. 3:3; Jas 1:18; 1 Pet. 1:22-23).

이 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짐(3, 참조: 요 3:3, 약 1:18, 벰전 1:22-23)

- b. This hope is kept alive through your faithfulness (5). While God's power will never fail, one's faith can fail (Lk. 22:31-32; Heb. 12:15). Satan cannot snatch us away from God, but he can lure us away (Jas. 1:13-15).

이 소망은 너희 신실함으로 살아 있음(5) 하나님의 능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사람의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음(눅 22:31-32, 히 12:15).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갈 수 없으나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음(약 1:13-15).

5. Is future –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5; cf. Mk. 10:30). That we do not already have it is implied by the use of the word “hope” (Rom. 8:24-25). When Jesus returns, the reward will be given (1 Th. 4:13-18).

장래의 것 - 마지막 때(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됨(5, 참조: 막 10:30)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어, 우리가 아직은 갖지 못했다고 했다(롬 8:24-25).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살전 4:13-18).

B. Your Suffering (1:6-9)

너희의 고난

A. Is temporary (6)

일시적이다 (6)

1. We rejoice in our future hope. We must develop the right perspective.

Sometimes this is difficult, but we must look beyond the here and now.

우리는 장래의 소망 중에 기뻐한다.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개발해야 한다.

때로 이것은 어렵지만 현재와 이곳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2. We may now, for a little while, be grieved by trials. Notice that it is for a little while. The suffering is not permanent (2 Cor. 4:17).

우리가 지금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잠깐임을 알라.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고후 4:17)

B. Is a test of faith (7-9)

믿음을 시험한다 (7-9)

1. Peter compares the testing to the testing of gold ore. The ore is heated by fire until the precious metal is separated from the dross. The heat purifies the gold.

베드로는 시험을 금광석과 비교한다. 광석은 귀중한 금속이 나올 때까지

불로 연단한다. 불이 금을 정결케 한다.

2. The trials of life are the fire by which one's faith is tested (cf. Mt. 13:3-9, 18-23).

인생의 시련은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불이다(마 13:3-9, 18-23).

3. Faith that survives the trials is a proven faith.

시련을 건딘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다.

- a. The value of proven faith (7) is far more than earthly treasures like gold. It includes praise (Mt. 25:21, 23), honor (Rom. 2:6-10), and glory (Rom. 8:16-17).

증명된 믿음의 가치는 금과 같은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다.

거기에는 칭찬과(마 25:21,23) 존귀와(롬 2:6-10) 영광이(롬 8:16-17)이 들어 있다.

- b. The nature of proven faith (8) is described as that which loves, believes, and rejoices in Jesus, even though it has never seen him (Jn. 20:29; 2 Cor. 5:7).

증명된 믿음은 예수를 한번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특징이 있다 (요 20:29, 고후 5:7).

- c. The result of proven faith is the salvation of one's soul (9). 증명된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9).

C. Old Testament Prophecy (1:10-12)

구약의 예언(1:10-12)

- A. The prophets were interested in our salvation (10). The terms used (*ekzeteo* and *exereunao*) indicate a diligent search. They had an intense desire to know more about this great thing in their predictions. They knew how important it was. But, it was not for them (12).

선지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10). 여기서 사용된 (엑제테오, 엑서레우나오) 단어는 부지런한 연구를 가리킨다. 그들은 그들의 예언에 나오는 이 위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예언은 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12).

- B. The prophets were inspired spokesmen (11). They did not make up their predictions; they were guided by the Holy Spirit (cf. 2 Pet. 1:21). What this means is that their message was guaranteed to be true and accurate. It is also crucial to note that the ones who first proclaimed the gospel were also inspired spokesmen (12).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아 말한 사람들이었다(11). 그들 스스로 예언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었다. 성령이 인도를 받아 예언한 것이다(벧후 1:21). 이는 그들의 메시지가 진리이고 올바름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또,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도 영감을 받아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C. The prophets spoke of the gospel, which included grace and the sufferings of Jesus (10-11; e.g., Is. 53).

선지자들은 복음에 대해 말했다. 거기에는 은혜와 예수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다.

- D. Importance in the context. The gospel is worth whatever suffering one must endure for it.

본 문맥에서 중요한 점. 복음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그를 위해 인내할 가치가 있다.

1. It is valuable enough to be willing to suffer for it. The Old Testament prophets recognized its value and angels recognize its value. 그를 위해 고난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 구약 선지자들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으며 천사들도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
2. It is the truth. It was predicted by divine inspiration and it was proclaimed by divine inspiration. Since it is true, it is worth suffering for it. 그것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포되었다. 그것이 진리이므로 그를 위해 고난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

D. Your Responsibilities (1:13-17)

너희의 책임 (1:13-17)

1.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13). The Greek text literally says,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To "gird up" means to gather in. It was common in that culture to wear long, flowing garments. In order to work or run, one had to gather up those long garments. They were often tucked inside a belt or sash in order to get them out of the

way for work or flight (e.g., Ex. 12:11; 1 Kgs. 18:46; Mt. 3:4; Acts 21:11). This image is used here to refer to indicate that one must gather in his thoughts. Satan wants to distract you so that you cannot focus on living for Jesus. Diversity is a powerful distraction. We must gather in our thoughts so that we do not allow our difficulties to distract us from walking with Jesus.

행동하기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13). 헬라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네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라(동이라)." "묶기 위해" 이는 안으로 넣는다는 뜻이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통상 길고 땅에 끌리는 겹옷을 입었다. 일하거나 달리기 위해서는 그 긴 겹옷을 들어올려야 했다. 종종 허리띠 안으로 집어 넣어 일이나 싸우기 쉽도록 했다(출 12:11, 왕상 18:46, 마 3:4, 행 21:11). 이와 같은 개념이 사람의 생각을 함께 묶기 위한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사탄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예수께 초점을 두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여러가지 일들은 매우 강력한 산만함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한데 묶어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Be sober (13). This is the word which means "not intoxicated." One can be intoxicated with substances. One can also be intoxicated by other phenomena in life. One can be "drunk with power." Another American saying refers to someone letting their success "go to their head." Trouble can also interrupt clear thinking. When people are desperate, they tend to act irrationally. We must work on keeping our thinking clear when we face severe opposition to our faith.
근신하라(13). 이것은 술 취하지(도취되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사람은 여러가지 일에 도취될 수 있다. 사람은 삶 속에서 여러 다른 현상 속에서 도취될 수 있다. 권력에 도취될 수도 있다. 성공만을 향해 몰두하기도 한다. 어려움도 분명한 생각을 방해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필사적일 때 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다.
3. Set your hope fully on the coming inheritance (13). The adversity we face can take our eyes off that goal. We must stay focused on the end in order to withstand the difficulties that come upon us (cf. 2 Cor. 4:16-18).
너희 소망을 장차 오는 유업에 온전히 두라(13). 우리가 직면하는 역경은 우리 눈을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Be holy (14-16). For an illustration of what holy means, see Exodus 30:22-38. To be holy includes being obedient (14), not allowing passions to control us (14), and being like God (15-16; cf. Lev. 19:2). Holiness is to encompass all of one's life.
거룩하라(14-16). 거룩이 무슨 뜻인지 그에 대한 예로 출애굽기 30:22-38을 보라.
거룩하려면 순종해야 한다.(14). 우리의 열정이 우리를 조정하게 하지 말고(14),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15-16, 참조: 레 19:2). 거룩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둘러 쌓여야 한다.
5. Live your entire life in fear of God (17).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
a. Earthly life is temporary (Jas. 4:14) and humans are exiles here (Heb. 11:13-16; 1 Pet. 2:11). When this life is over, God will judge (Mt. 25:31-46; 2 Cor. 5:10), and he will judge impartially (Acts 10:34; Mt. 22:16; Rom. 2:11; Gal. 2:6).
땅위에서의 삶은 일시적이며(약 4:4), 사람은 여기서 나그네이다(히 11:13-16, 벧전 2:11).

- b. “Fear” sometimes refers to being afraid of judgment (Lk. 12:4-5; Heb. 10:26-31).
“두려움”은 종종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기도 한다(눅 12:4-5, 히 10:26-31).
 - c. But, it also refers to reverence for God, without being afraid of judgment (1 Pet. 2:17; Ecc. 12:13; 1 Jn. 4:17-18).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벧전 2:17, 전 12:13, 요일 4:17-18).
- E. The Bases of Salvation (1:18-2:3)
구원의 기초 (1:18-2:3)
- 1. Redemption is based on the blood of Jesus (1:18-21).
구속은 예수님의 피를 기반으로 한다(1:18-21).
 - a. Redemption refers to being set free by the payment of a ransom. Under the Law of Moses, a person who sold himself into slavery to pay his debts could be redeemed out of that slavery (Ex. 13:11-13).
구속은 속량의 값을 치름으로 자유케 됨을 뜻한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빚을 갚아 노예로서 벗어나 속량 될 수 있다.
 - b. We were redeemed from our meaningless lifestyle of sin (18). Sinful living makes us slaves (Rom. 6:16).
우리는 의미 없는 죄의 생활에서 구속되었다. 죄악의 삶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롬 6:16).
 - c. We were not redeemed with money,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Mt. 20:28; 1 Tim. 2:6). This was God’s plan before the world was ever created (20; Eph. 1:3-4), but the plan was not carried out until the time was right (Gal. 4:4-5).
우리는 돈으로 구속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받았다(마 20:28, 딤후 2:6). 이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20, 엡 1:3-4). 그러나 그 계획은 때가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갈 4:4-5).
 - 2. Rebirth is based on the word of God (1:22-2:3).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다(1:22-2:3).
 - a. Souls are purified by one’s obedience to the truth (22). Purification is needed because sin corrupts us. Only those who obey go to heaven (Mt. 7:21). Those who obey receive salvation from Jesus (Heb. 5:9). Those who obey are freed from sin (Rom. 6:16-17). Those who do not obey will be punished (2 Th. 1:7-9).
영혼은 사람이 진리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된다(22). 죄가 우리를 타락시켰으므로 깨끗하게 됨이 필요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간다(마 7:21).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히 5:9). 순종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롬 6:16-17).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살후 1:7-9).
 - b. One result of this purification is sincere, earnest love for the brothers (1:22).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가운데 하나는 진실한 형제 사랑이다(1:22).
 - c. This birth is not from perishable seed, but from imperishable seed (1:23-25). Contrast is made here between the human seed that is needed to conceive a child and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seed that produces new Christians. He cited Isaiah 40:6, 8 as an illustration that earthly life is temporary.

Contrasted with that the word of God is permanent.

이와 같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1:23-25). 여기서 사람의 씨와 대조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는 씨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땅 위의 인생이 일시적임을 예로 들면서 이사야 40:6, 8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 인생과 대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 d. Since the Christian has been reborn, he is to put away former sinful behaviors like malice,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New Christians, like new babies, should desire the milk that will help them grow. The same word of God that makes one a Christian will then help that Christian to grow in the faith. The Christian must develop a strong desire for that milk.
-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으므로 이전의 죄 된 행동 곧 악독, 속임, 위선, 비방 등을 벗어버려야 한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그들을 자라게 할 젖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그와 같은 젖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II. Things You Need to Remember (2:4-3:12)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들 (2:4-3:12)

A. Who Jesus Is – the Cornerstone (2:4-8)

예수가 누구인지 – 모퉁이 돌 (2:4-8)

1. This is construction terminology. In that setting, houses were built of rock. It was crucial to choose the best rock to serve as the cornerstone of the building. A good cornerstone would ensure solid and straight walls. So, builders would spend enough time to choose the best stone to serve as the cornerstone.
이는 건축 용어이다. 건축에서 집은 돌 위에 세워진다. 빌딩의 모퉁이 돌로 제일 좋은 바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모퉁이 돌은 벽체를 굳건하고 똑바로 지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은 모퉁이 돌로 쓰일 가장 좋은 돌을 찾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것이다.
2. Jesus is the cornerstone of God's house, the church (cf. 1 Cor. 3:16; 2 Cor. 6:16; Eph. 2:20-22; 1 Tim. 3:14-15). Men rejected him, but God chose him (Ps. 118:22; Acts 4:11).
예수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다 (참조: 고전 3:16, 고후 6:16, 엡 2:20-22, 딤후 3:14-15).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시 118:22, 행 4:11).
3. He is a living stone (4). This implies at least two truths: Jesus is still alive and God's house is a living structure. This will connect to the living stones which make up the house of God (5).
그는 산 돌이다(4). 이것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진리가 들어 있다. 예수는 여전히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집은 살아 있는 구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산 돌과 연결될 것이다(5).
4. Those who believe in him will not be ashamed (cf. Is. 45:16-17)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사 45:16-17).

B. Who You Are (2:5, 9-12)

너희가 누구인지 (2:5, 9-12)

1. Living stones (5). Christians are the stones in God's house, lined up with the cornerstone, Jesus (4; cf. Eph. 2:20-22).
산 돌(5).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연결된 돌들이다(참조: 엡 2:20-22).
2. A holy and royal priesthood (5, 9). Christians are a holy priesthood because of the righteous lifestyle they live. They are a royal priesthood because they belong to the King, Jesus. Every Christian is a priest, with the responsibility to offer spiritual sacrifices to God (5; Heb. 13:15-16; Rom. 12:1). There is not a separate priesthood under the New Testament like there was under the Old Testament. Those sacrifices are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He is the high priest (Heb. 4:15). He is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1 Tim. 2:5). Those sacrifices are spiritual sacrifices rather than animal sacrifices.
거룩하고 왕의 제사장(5,9).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왕의 제사장들이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적 희생을 드리는 책임을 지닌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별도로 제사장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별도의 제사장이 따로 없다. 그 희생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히 4:15). 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다(딤후 2:5). 그들의 희생제물은 동물 희생이 아니라 영적

희생이다.

3. A chosen race (9).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to this designation is that God chose the people of Israel to be his chosen people, special above all others (Dt. 7:6; Ex. 19:5). That changed at the cross. Now people of all nationalities can be God's chosen people when they obey the gospel of Jesus.
택하신 족속(9) 이에 대한 구약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다른 모든 족속보다 특별하다는 점이다(신 7:6, 출 19:5). 그것이 십자가에서 바뀌었다. 이제 모든 민족의 백성은 그들이 예수의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4. A holy nation (9). The church is a kingdom with Jesus as the king (Jn. 18:38; Col. 1:13). It is not a geo-political kingdom, but a spiritual one that transcends geo-political boundaries (Jn. 18:38; Dan. 2:44). It is a nation that is characterized by holy living.
거룩한 나라(9). 교회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왕국이다(요 18:38, 골 1:13). 이것은 지정학적 왕국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계를 초월한 영적 왕국이다(요 18:38, 단 2:44). 이는 거룩한 삶을 특성으로 하는 나라이다.
5.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 (9). At one point you were not God's people, but now you are (10; Hos. 1:6-10, 2:23; Rom. 9:25-26; Eph. 2:11-13). He has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cf. Col. 1:13; Jn. 1:4, 3:16-21). Your responsibility as God's possession is to proclaim his excellencies.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9). 한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10, 호 1:6-10, 롬 9:25-26, 엡 2:11-13). 그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골 1:13, 요 1:4, 3:16-21).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
6. Sojourners and exiles (11-12). Christians are sojourners on the earth – their citizenship is in heaven. Thus, Christians must live like citizens of heaven. Fleshly lusts war against the soul. There is a spiritual warfare happening while we live on the earth. Also, Christians must live exemplary lives so that accusations of wrongdoing against them are false. Romans often accused Christians of cannibalism and incest. Note that the glory for right living is not found in this lifetime, but in the day of visitation to come. "Day of visitation" refers to God visiting people in judgment (cf. Is. 10:1-3; Jer. 10:14-15; 46:21; Lk. 19:44).
거류민과 나그네(11-12).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류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 육적 욕망은 영혼을 거슬린다. 또, 그리스도인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악행 한다고 비방이 그릇됨을 보여주어야 한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풍습과 근친상간을 한다고 종종 비난했다.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삶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만, 오시는 날에는 나타나게 된다. "오시는 날"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러 오심을 가리킨다(사 10:1-3, 렘 10:14-15, 눅 19:44).

C. What Your Roles Are (2:13-3:7)

너희 역할이 무엇인지 (2:13-3:7)

1. As citizens (2:13-17). Christians submit themselves to the civil authorities, from the highest level to the local level. It is God's will that his people submit to the civil government. This would demonstrate that their accusers were wrong. It was common for Christians to be accused of being lawbreakers. Contrary to that, Christians are law abiding citizens. Of course, one remembers that if governmental law violates God's law, then the Christian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Acts 5:29). But within the

boundary of God's law, Christians are expected to obey man's laws. One should not use his freedom as an excuse to engage in evil behavior. One should use his freedom to serve God.

시민으로서(2:13-17). 그리스도인은 가장 높은 권세로부터 가장 낮은 권세까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사람이 세상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그릇되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어긴다고 비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키는 시민이다. 물론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그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 5:29).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악한 행위를 변명하는 데 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

2. As Slaves (2:18-25). Slaves who became Christians were to submit to their masters, even if those masters were unfair. One must continue to remember that submission to God comes first. So, the Christian was not required by God to submit to a master who was requiring them to do ungodly things. Those slaves who were made to suffer unfairly while being faithful to God were praised. Those slaves who suffered because they misbehaved deserved what they received. To suffer and continue to do right is to follow the example of Jesus. Jesus, indeed, suffered unfairly. But, he did not seek revenge or return insults to those who hurt him and insulted him. Rather, he continued to follow the Father's will. Peter quoted Isaiah 53 as a reminder that Jesus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We are healed of our sins by the wounds that he suffered. Just as he was willing to suffer for our benefit, we should be willing to suffer in service to him.

종(사환)으로서(2:18-25).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그들의 주인이 비록 부당하더라도 종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불경건한 일을 요구해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신실한 종들은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잘못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종들은 칭찬 받을 수 없었다. 고난당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의 모범을 따른 것이다. 예수는 참으로 부당하게 고난 당하셨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을 계속 따랐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고 했다. 그가 고난 당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우리 죄에서 나음을 받았다. 예수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몸소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

3. As wives (3:1-6). Christian wives were to submit to their husbands, even if their husbands were unbelievers. Again, this submission is limited by their submission to God first. Wives who conducted themselves properly might be able to win their husbands to the faith by their example. Peter urged these wives to focus more on their internal adorning than on their external adorning. He used Sarah as an example. Sarah submitted to Abraham as the head of the household. So, Christian wives are supposed to submit to their husbands.

아내로서 (3:1-6).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바른 행실을 하는 아내들은 그들의 모범을 통해 남편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내들에게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도록 권면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가장으로 순종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4. Additional note about a figure of speech. Whether or not the figure of speech is obvious here depends upon how the passage has been translated. Some are concerned about whether this passage forbids women from wearing jewelry or styling their hair. That external adorning that was forbidden included "the putting on of clothes." If this is an absolute prohibition, then Christian women were forbidden to wear clothes. So,

if this passage prohibits the wearing of jewelry or the styling of hair, it also prohibits the wearing of clothes. The truth is that this is a figure of speech whereby the case is overstated in order to emphasize the real point. The same figure of speech is used in John 6:27. If this statement by Jesus was intended to be absolute, then a person is forbidden to work for physical food. The Bible, though, commands a person to work for food (2 Th. 3:6-10). Jesus intended to emphasize how important spiritual food is. To magnify that truth, he used this figure of speech: do not work for physical food, but rather work for spiritual food. In the same way, Peter wa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nner character: do not wear clothes or jewelry, but rather develop your inner Christian character.

말에 화법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 본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달려있긴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말의 화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이들은 본 구절에서 여자들이 보석이나 머리를 치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의 외모의 치장은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옷 입는 것도 금지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구절이 보석이나 머리 스타일을 꾸미는 것을 금한다면 옷 입는 것도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된 화법이다. 같은 화법이 요한복음 6:27에도 쓰였다. 예수의 이 언급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사람의 육적 음식을 위해 일하는 것의 금지이다. 성경은 오히려 음식을 위해 일하라고 명령한다(살후 3:6-10). 예수는 영적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것이다. 진리를 크게 보이시려고 그는 이와 같은 화법을 사용하셨다. 육적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적 음식을 위해 일하라. 똑같은 방법으로 베드로는 내적 품성을 강조한 것이다. 옷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내적 품성을 계발하라.

4. As husbands (3:7). Husbands were supposed to understand that their wives were physically weaker. So, they were supposed to treat them properly given that consideration. Also, Christian wives are equal heirs of God with their Christian husbands. God will not hear the prayers of a Christian who does not take proper care of his wife.

남편으로서 (3:7)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들이 육체적으로 더 약함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 아내들에게 적절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올바르게 대해주지 않는 남편의 기도를 듣기 않으실 것이다.

D. How to Behave (3:8-11). Verses 10-12 are a quote from Psalm 34:12-16.

어떻게 행동할지(3:8-11) 10-12절은 시편 34:12-16의 인용임.

1. Unity of mind (8). Such unity of mind is often enjoined upon Christians (e.g., Rom. 12:16; 15:5-6; Php. 2:2; 4:2). The only way to have unity of mind is if all Christians will submit to the teachings of the Bible. Christians are allowed to think differently about those things which do not impact one's fellowship with God (Rom. 14).
마음의 일치(8) 이와 같은 마음의 일치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되었다(롬 12:16, 15:5-6, 빌 2:2, 4:2).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일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롬 14).
2. Sympathy (8). This word (*sumpathes*) literally means “to feel with.” One is reminded of passages like Romans 12:15, where Christians are urged to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and weep with those who weep.
동정(8). 이 단어(섬파테스)는 문자적으로 “함께 느끼다”는 뜻이다. 이는 로마서 12:1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한다.
3. Brotherly love (8). This word (*philadelphia*) indicates the close affectionate connection that should exist between fellow Christians. We have already seen this earlier in 1 Peter (1:22).
형제 사랑(8). 이 단어(필라델피아)는 동료 그리스도인 사이의 있어야 하는 사랑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벵전 1:22에서 살펴본 적이 있다.
 4. Tender heart (8). The Greek word here (*eusplagchnos*) literally means “good bowels.” It refers to that stirring one feels in his abdomen when he hears distressing news about a loved one. This has to do with a compassionate mindset and genuine concern for others.
부드러운 마음 (8). 여기 나오는 이 단어(유스플라크노스)는 문자적으로 “좋은 창자”를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배 속에서 창자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순전한 염려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5. Humble mind (8). This is the opposite of pride. Christians learn not to think too highly of themselves (cf. Rom. 12:3; Php. 2:1-3).
겸손한 마음 (8). 이것은 교만의 반대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롬 12:3, 빌 2:1-3).
 6. Avoid revenge (9). The initial reaction to being mistreated or insulted by others is to return the same treatment back to them. The followers of Jesus learn not to return evil treatment to others (Mt. 5:43-48; Rom. 12:17-21).
원수 갚기를 피하라 (9). 잘못된 대우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첫 반응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마 5:43-48, 롬 12:17-21).
 7. Seek to bless others (9). Rather than trying to seek revenge, the Christian is supposed to be a blessing to others – even those who mistreat the Christian. We were called by Jesus to bless others rather than harm others.
다른 사람의 복을 빌라 (9). 그리스도인은 복수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보다는 복을 빌어주라는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
 8. Do not speak evil or deceit (10). James 3 gives significant instruction about one’s speech (cf. Eph. 4:29; 5:4; Col. 3:8; Rev. 1:8).
악한 말이나 속임수를 말하지 마라 (10).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9. Avoid evil and do good (11; cf. 1 Th. 5:21-22)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11, 참조: 살전 5:21-22)
 10. Seek and pursue peace (11; cf. Mt. 5:9)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11, 참조: 마 5:9).

III. Things You Need to Know (3:12-4:19)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3:12-4:19)

A. God Is On Your Side (3:12-13)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3:12-13)

1. This passage uses a figure of speech called anthropomorphism. This refers to attributing to God human characteristic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how God works. God is spirit (Jn. 4:24), and so he does not literally have ears and eyes. 이 구절은 의인화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요 4:24) 그는 문자 그대로 사람처럼 귀나 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2. The idea of God's eyes being one someone means that he is watching over them; he will provide for them (cf. Dt. 11:12; 2 Chr. 16:9). God is watching out for the righteous. 하나님의 눈이란 개념은 어떤 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신 11:12, 대하 16:9).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신다.
3. God also listens to the prayers of the righteous (cf. Pr. 15:8, 19; Is. 59:1-2). 하나님은 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잠 15:8, 19, 사 59:1-2)
4. God's face shines on those who are righteous (Num. 6:25; Ps. 80:19), and his face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Lev. 17:10; 20:3, 5, 6; Jer. 21:10). 하나님의 얼굴은 의를 향하는 자에게 향하시며(민 6:25, 시 80:19), 그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레 17:10, 20:3, 5, 6, 렘 21:10).
5. Thus, those who pursue good have God on their side (Rom. 8:31; Ps. 118:6; Mt. 10:28). 그러므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롬 8:31, 시 118:6, 마 10:28).

B. How to Answer Your Challengers (3:14-16)

도전에 대처하는 법 (3:14-16)

1. Do not be intimidated (14, 2 Tim. 1:7; Is. 8:12; 51:12-13). 두려워하지 마라 (14, 딤후 1:7, 사 8:12, 51:12-13).
2. Sanctify Christ in your heart (15). This means that we ought to set him apart as the most important in our devotion and loyalty (cf. Num. 20:12).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드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셔야 한다는 뜻이다(민 20:12).
3. Be prepared to answer (15). The Greek word used here (*apologia*) literally means to make a defense. The Christian should be able to give a reason (*logos*) of the hope he has. The Christian faith is reasonable. It takes effort to be prepared to so answer (cf. 2 Tim. 2:15; Jn. 8:31-32). This preparation helps with the first step. The more you know about why you believe what you believe, the less you can be intimidated by accusers.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아폴로지아)는 문자적으로 방어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로고스)를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대답할 준비를 갖추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딤후 2:15, 요 8:31-32).
4. Answer with the right demeanor (16). Regardless how those who attack you behave, you as a Christian should respond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의로운 행실로 대답하라(16). 당신이 믿음을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써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5. Live right (16). Make sure that those who say evil things about you are not telling the truth about your character. Live right so that all can see your good character.

선한 삶을 살라(16).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너희 품성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있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라. 모든 사람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라.

C. Why You Should Be Willing to Suffer for Jesus (3:17-4:6). Jesus was willing to suffer in order to provide for the forgiveness of our sins. Since he was willing to suffer for us, we ought to be willing to suffer in service to Jesus.

예수를 위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3:17-4:6).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려 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려 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를 섬기는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1. If you must suffer, make sure it is for doing what is right rather than for any wrongdoing (3:17). This is a common refrain in 1 Peter.
고난 받아야 한다면 악을 행하므로 고난 받기 보다는 선을 행하므로 고난 받으라(3:17).
이점은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다.
2. To understand Peter's point in the context, one must be able to understand what he meant when he referred to Jesus preaching to the spirits in prison (3:18-20). There are basically three suggestions for the meaning of this difficult saying.
본 문맥에서 베드로의 요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가 선포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3:18-20). 이 어려운 문맥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기본적인 해석이 있다.
 - a. When Jesus died physically and his soul went to the Hadean realm, he literally preached the gospel message to those souls that were imprisoned there due to their wickedness. If this is so, it would indicate that they had an additional opportunity to obey and be saved. This does not fit with the teachings of Scripture (Heb. 9:27; 2 Cor. 5:10; Lk. 16:26).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의 영혼은 하데스로 가셨다. 그가 거기서 악행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셨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에 순종해 구원받는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졌음을 뜻한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히 9:27, 고후 5:10, 눅 16:26).
 - b. When Jesus died physically and his soul went to the Hadean realm, he simply proclaimed his victory to those souls who were imprisoned there due to their wickedness. He did not evangelize, he simply proclaimed his victory without giving them hope of getting out.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의 영혼이 하데스로 가셨다. 거기서 자신의 악행 때문에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을 주시지 않았지만 거기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 c. The preaching mentioned here did not take place during the time that Jesus was in the Hadean realm. Peter has described those spirits as being in prison at the time he wrote but not at the time that the spirit of Jesus preached to them. Jesus is presented as preaching to the people of Noah's day "in spirit." He did this preaching through Noah. The point would be that he inspired the message Noah proclaimed. That message was proclaimed to the people of Noah's day, but they did not listen. So, now they are in prison.
여기에 나오는 전도(선포)는 예수께서 하데스에 계실 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옥에 있는 영혼들을 묘사한 것이지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선포한 때를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노아의 때 사람들에게 "영으로" 선포되었다. 그는 이 선포(전도)를 노아를 통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점은 노아가 선포한 메시지는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옥에 갇혀 있다.
3. Peter was making the point that Jesus was killed physically, but he was still alive

spiritually. They had killed his body, but not his spirit. It was in that same spiritual realm that Jesus had preached, through Noah, to the people of Noah's day. He was illustrating the idea of the spiritual realm. Jesus was alive in the spiritual realm before he became a fleshly being. He is alive in the spiritual realm after they killed his fleshly body.

베드로는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영으로 살아 계심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주님의 몸을 죽였지만 그의 영은 죽이지 못했다. 그와 같은 영적 영역에서 예수는 노아의 날에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포(전도)하셨다. 예수는 육체가 되시기 전에도 영적 영역에서 살아 계셨다. 그리고 그의 육적 몸이 죽임을 당한 후에서 영적 영역에서 여전히 살아 계신다.

4. God intended the flood to be a figure which would foreshadow baptism in the gospel (3:20-21). Only eight souls were saved in the ark. By the way, this proves that animals do not have a soul in the sense that people do. The ark was full of animals, but only eight souls were saved. The point is that the same water that killed all other people saved those eight who were in the ark. In the same way, baptism marks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are lost and those who are saved.

하나님은 홍수를 복음의 세례에 대한 그림자로 의도하셨다(3:20-21). 겨우 여덟 영혼만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볼 때 동물들은 사람과 같은 영혼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방주에 동물이 가득차 있었지만 오직 여덟 영혼만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요점은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바로 그 물이 방주에 있는 여덟 영혼을 구원했다는 점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는 잃어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5. Jesus thus set the example for how we should approach life (4:1-5). Since Jesus suffered in the flesh, we are willing to suffer in the flesh in order to follow God's will. We are motivated to leave behind the old, sinful ways and refuse to allow physical passions to control us. Because of this change of heart and life, many Christians are ridiculed by those with whom they used to practice those sinful things. They will answer to God for their attack against Christians.

이로서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4:1-5).

예수가 육체로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육체로 있을 때 고난을 감당하려고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제어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이전의 죄 된 길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를 부여 받는다. 이와 같은 마음과 삶의 변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최악 된 행실을 함께 한 사람들과부터 비방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대적한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께 답을 해야 할 것이다.

6. Peter mentioned that the gospel was preached to those who are dead (4:6). They were dead at the time Peter wrote, but not at the time the gospel was preached to them. This seems to refer to those who died for their faith – like Stephen (Acts 7) and James (Acts 12). They were judged guilty by men, but they are alive in the spiritual realm because of the gospel.

베드로는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했다(4:6). 베드로가 본 서신을 기록할 당시 그들은 죽어 있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당시에는 죽어 있지 않았었다. 이것은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스테반(행 7), 야고보(행 12)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지만 복음 때문에 영적 영역에서는 살아 있는 것이다.

7. One important lesson emphasized by Peter here is that physical death is not the end. They can hurt you and kill you physically, but they cannot kill your soul (cf. Mt. 10:28). The bigger lesson is that Jesus is the example we follow when we endure suffering and keep our faith.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한 중요한 한 교훈은 육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육적으로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마 10:28). 더 큰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 예수는 우리가 따를 모범이라는 것이다.

D. How to Live in the Face of Trial (4:7-11)

고난에 직면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4:7-11)

1. Peter wrote that the end of all things was at hand (4:7).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기록했다(4:7).
 - a. Some interpret this to be a reference to the return of Jesus and the end of time. One problem with that interpretation is that it is not true. It has been almost two thousand years since Peter wrote those words, and the end has not yet come.
이는 예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 해석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한지 거의 이 천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b. Some suggest that Peter thought the end was near, but it really was not. This takes away divine inspiration of Peter's words. Also, one must remember that Jesus indicated that the timing of the end was only known by the Father (Mt. 24:36).
베드로는 끝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런 해석은 베드로가 한 말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앗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c. The truth is that Peter was referring not to the end of time, but to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by the Romans and the end it would bring to the Jewish sacrificial system. Peter wrote these words in the early to mid 60s. Jerusalem was destroyed in the year 70. It was near.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끝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교 희생제도의 종말을 가져왔다. 베드로가 본 서신을 쓸 때는 60년대 중반이었다. 예루살렘은 70년에 멸망되었다. 그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이다.
2.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would also have significant impact on Christians. Also, the Roman attack against the church would increase in severity following that major event. So, Peter gave instructions about how the Christians needed to live in the midst of that upheaval.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또, 교회에 대한 로마의 공격은 이 중요한 사건에 뒤따라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와 같은 혼란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한 교훈을 준 것이다.
3. They needed to be sober-minded and practice self-control. That is, their thinking and their behavior needed to be holy and godly.
그들은 깨어 절제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었다. 그들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 They needed to keep practicing their love for each other. This would include keeping each other faithful (4:8; cf. Jas. 5:19-20; Gal. 6:1-2). It would also include being hospitable (4:9; cf. Rom. 12:13; Heb. 13:2).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실천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서로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4:8, 야 5:19-20, 갈 6:1-2). 또, 서로 친절을 베푸는 것도 포함된다(4:9, 롬 12:13, 히 13:2).
5. They needed to use their divinely endowed gifts to continue serving God and one another (4:10-11).
아직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기데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4:10-11).
 - a.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gifts" is *charisma*. Most often it is used in the New Testament to refer to miraculous gifts given to people by the Holy Spirit (but it is not exclusively so used).

여기서 “은사”로 사용된 헬라어는 카리스마이다. 신약에서 대부분 이 단어가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적적인 은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님).

- b. Here these gifts seem to be broken down into two categories: speaking and serving. Prophecy would be an example of a miraculous gift of speaking. Healing would be an example of a miraculous gift of serving.
여기서 이 은사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 데 그것은 말하는 것과 섬김이었다. 예언은 말하는 기적적인 말하는 은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병고침은 섬김의 기적적인 은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 c. While we do not still receive such miraculous powers (cf. 1 Cor. 13:8-10), we do still enjoy God’s grace. We should use whatever God has given us to serve one another.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서로를 섬기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다.

6. Their focus would be to submit to God and to glorify God by their actions (4:11; cf. 1 Cor. 10:31).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들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4:11, 고전 10:31)

E. There Is Glory in Suffering for Jesus (4:12-19)

예수를 위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4:12-19)

1. They were not to be surprised when they are made to suffer (4:12). Suffering inflicted on Christians in that setting would not be a strange thing; rather, it would be quite common.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4:12).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고난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2. Rather than being surprised, they were to rejoice. This was because they were shar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4:13-14). Further, those who endure such suffering will have the ultimate joy when Jesus returns.
놀라기 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4:13-14). 더 나아가 그런 고난을 인내한 삶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3. While there is glory in suffering for the cause of Christ, there is no glory in suffering for wrongdoing (4:15).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기쁨이 있지만 잘못함으로 받는 고난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4:15).
4. Do not be ashamed if you are made to suffer for the cause of Christ (4:16, 19). There is shame in suffering for sinful behavior. But there is no shame in suffering for serving Christ Jesus our King. To stay faithful in the face of persecution is to put your trust in God, who is faithful. Since he is faithful, you can be sure he will reward you with eternal life for being true to him.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4:16, 19). 죄 된 행동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럽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박해를 직면해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려면 우리 믿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므로 그를 진실하게 섬기면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음을 확신할 수 있다.
5. Interesting note: the word “Christian” only occurs three times in the New Testament – 1 Peter 4:16, Acts 11:26, and Acts 26:28. The word, of course, simply refers to one who is a follower of Christ.
참고: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신약에 딱 세 번 나온다. 벧전 4:16, 행 11:26, 행 26:28.

물론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6. The judgment of 4:17-18 cannot be a reference to the final judgment.

4:17-18에 나오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킬 수는 없다.

- a. Peter wrote that it was time for that judgment to begin. It must have referred to something that happened closer in time to when Peter wrote these words. 베드로는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로부터 그리 멀리 않아 일어날 것을 가리켰을 것이다.
- b. Also notice that he wrote that the righteous would scarcely be saved. On Judgment Day, the people of God will be given an “abundant” entrance into heaven (2 Pet. 1:11). So, salvation on that day will not be “scarce,” but rather it will be “abundant.”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쓴 점을 주목해보라. 심판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하게 많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벧후 1:11). 그러므로 그 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을 것(의인이 겨우)”이라고 했다.
- c. Eusebius recorded that no Christians died in the siege and destruction of Jerusalem, but Josephus recorded that 1,100,000 Jews died in that siege. Due to the warning given by Jesus (Mt. 24:15-20), the Christians were able to flee the siege of Jerusalem. They did suffer much, but they escaped that siege. The ungodly Jews did not escape.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도 죽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포위 될 때 110만명이 유대인이 죽었다고 기록했다. 예수의 경고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마 24:15-20)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 포위에서 피해 나갈 수 있었다. 그들도 고난은 당했지만 포위를 벗어났다.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피하지 않았다.

IV. Things You Need to Do (5:1-9)

해야 할 일들 (5:1-9)

A. Elders – Do Your Work (5:1-4)

장로들 - 맡은 일을 하라 (5:1-4)

1. Three terms for the church leader (cf. Acts 20:17, 28)
고난교회 지도자에 대한 세 가지 용어 (행 20:17,28 참조)
 - a. Elder (*presbuteros*) indicates age and experience. There is also an Old Testament background. The elders of a city were the men who provided guidance and decided court cases (e.g., Dt. 21, 22, 25).
장로(프레스뷰터러스)는 연륜과 경험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구약의 배경도 있다. 한 성의 장로는 사람을 인도하고 소송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신 21, 22, 25 참조).
 - b. Shepherd (*poimen*) uses the image of a shepherd and sheep to illustrate the work of this church leader. The shepherds care for the sheep, including feeding them and protecting them. So, Peter urges them to do the work of a shepherd in their congregation. This is the word that has been translated “pastor.” The word “pastor” simply means “shepherd.” Some churches follow a system whereby there is only one pastor over the congregation. See note below on plurality of shepherds.
목자(포이멘)는 목동과 양의 이미지를 사용해 이 교회 지도자의 사역을 보여준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데, 거기에는 먹이를 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의 회중에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권면했다. 이 단어가 ‘목사’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목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목자’를

뜻한다. 어떤 교회들은 회중을 감독하는 한 명의 목자만을 두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아래에서 목자의 복수형을 살펴보자.

- c. Overseer (*episcopos*) indicates that these leaders make sure that the work of the congregation proceeds in keeping with God's will. So Peter urges them to do this work of overseeing their congregation.

감독(에피코포스)은 이 지도자들이 회중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는지 살핀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회중을 감독하는 이 사역을 하라고 그들을 권면한다.

2. The authority of these leaders is limited to the local congregation (5:1-2). Note that Peter urges them to shepherd and oversee the flock which was among them. There is no biblical authority for any person or group of people having authority over churches beyond the local congregation.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지역 회중으로 제한된다(5:1-2).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감독하라고 권면한 점을 주의하라. 지역 교회를 벗어나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관장하는 성서적인 권위는 없다.
3. There appears to be a plurality of these leaders in the local congregation (5:1; cf. Acts 14:23). There is no biblical authority for only one shepherd over a congregation.
지역 교회에는 복수의 지도자들이 있었다(5:1, 행 14:23). 단 한 명의 목자가 회중을 감독하는 성서적인 권위는 없다.
4. These church leaders must be willing and eager to serve in this capacity (5:2).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간절히 섬기기를 원해야 한다(5:2).
5. These church leaders must not be greedy (5:2). There will be money under their control. They must be the kind of men who can be trusted to use that money to God's glory.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욕심이 없어야 한다(5:2). 재정을 이들이 관장했다. 이들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신임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6. While these church leaders do have authority, they do not domineer over the congregation (5:3). One might consider Diotrophes, who tried to have control over his whole congregation (3 Jn. 9-10).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권위가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지배하지는 않는다(5:3). 디오드레베는 전 회중을 자기가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요삼 1:9-10)
7. Those who serve faithfully will receive a crown of glory when Jesus returns (5:4).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 C. Younger Ones – Submit to the Elders (5:5). The work which elders do is hard work.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souls of those whom they serve. Those who are under the oversight of the elders can make that work harder by resisting their leadership. This will lead to judgment from God (Heb. 13:7, 17).

젊은 사람들 - 장로들에게 순종하라(5:5). 장로들의 사역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 섬기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장로의 감독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력에 반발하면 장로들의 사역이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히 13:7, 17). 4

All – Be Humble (5:5-6). God opposes the proud and gives grace to the humble (cf. Lk. 14:1; Jas. 4:10). There is no room for arrogance before God. Peter urges, though, that we behave toward one another with humility rather than pride.

모두 - 겸손하라(5:5-6).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눅 14:1, 약 4:10).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 베드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교만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D. Lean on the Lord (5:7). God cares about you, so you can lean on him in times of suffering (cf. Php. 4:6). Paul had learned that he became stronger when he leaned more on the Lord when

he suffered physical weakness (2 Cor. 12:7-10).

주님께 맡기라(5:7). 하나님이 돌보시므로 고난의 때에 그를 의지할 수 있다(빌 4:6). 바울은 그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배웠다(고후 12:7-10).

- E. Be Sober and Vigilant (5:8). Peter again calls upon Christians to have clear thinking and to be alert. We must be watchful because our adversary is working against us. We must never let our guard down.

근신하라 깨어라(5:8).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어 있으라고 한다. 우리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

- F. Resist the Devil (5:8-9). The devil uses whatever means he can find to try to defeat our faith. He has many weapons he can use against us. So, we must be vigilant in our spiritual battle. In this context, Peter connected this attack from the devil with the persecution that they would suffer. He encouraged them by reminding them that they were not the only ones who were suffering for their faith. Do not surrender to him, but resist him by keeping your faith and service to Jesus.

마귀를 대적하라(5:8-9).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문맥에서 베드로는 마귀의 공격과 그들이 당하는 박해를 연관시키고 있다. 마귀에게 항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섬김으로 그를 대적하라.

- V. Conclusion (5:10-11). Peter reminded them again that this suffering would be temporary. After they had endured the suffering, God would take care of them.

결론(5:10-11)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고난이 일시적임을 상기해 주었다. 그 고난을 인내한 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 A. He is the God of all grace. He is able to give what he promised – home with him in his eternal glory.

그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는 약속하신 것 곧 그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지낼 집(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 B. He will restore (*katartizo*) you. This word means to mend, make right, or to make complete. It was used to refer to mending one's fishing nets (e.g., Mt. 4:21). It is also used to refer to restoring an erring brother (Gal. 6:1).

그는 우리를 회복(카탈리조)시킬 것이다. 이 단어는 고치고 올바르게 하고 혹은 완전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물고기 잡는 그물망을 고치는 것을 가리킨다(마 4:21). 또,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것에도 이 단어가 쓰인다(갈 6:1).

- C. He will confirm (*sterizo*) you. This word means to strengthen, make firm, or establish. It is used to refer to the teaching that makes one firm in his faith (Lk. 22:32; Rom. 16:25).

그는 너희를 인정(스테리조)하실 것이다. 이 단어는 강하고, 견고하게 혹은 세운다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을 그의 믿음에 굳건히 하는 교훈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한다(눅 22:32, 롬 16:25).

- D. He will strengthen (*sthenoo*) you. This word occurs only once in the New Testament. It means to make strong.

그는 우리를 강하게(스테누)하실 것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한번 나온다.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 E. He will establish (*themelioo*) you. This word refers to the foundation upon which a house is built (Mt. 7:25). We must have the solid foundation of love (Eph. 3:17) and faith (Col. 1:23).

그는 너희를 견고하게(테밀리우)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엡 3:17) 믿음의 (골 1:23) 확고한 터를 가져야 한다.

- F. God will make you solid in your faith, as long as you stay loyal to him.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VI. Closing (5:12-14)

마무리 (5:12-14)

- A. This letter was actually written by Silvanus, at Peter's dictation (5:12). Biblical authors did sometimes use others to do their writing (cf. Rom. 16:22; 1 Cor. 16:21). Silvanus and Silas are two forms of the same name.
본 서신은 베드로의 대필자인 실루아노가 실제로 썼다(5:12). 성경 저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시켜 자기의 글을 쓰기도 했다(롬 16:22, 고전 16:21). 실루아노와 실라는 동일인데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
- B. For Peter to identify his message as the true grace of God implies that there is such a thing as false grace of God. That is, what people call God's grace may not at all be God's grace. Thus, it is imperative that we know the truth about God's grace. And we must stand firm in that true grace.
베드로가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헛된 은혜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참된 은혜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
- C. She who is at Babylon sends greetings (5:13).
바벨론에 있는 교회(she)가 문안하노라 (5:13)
1. There are three suggestions for who it is who sends greetings.
이와 같은 문안인사를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설명이 있다.
 - a. It is a reference to Peter's wife who is traveling with him.
베드로와 함께 여행하는 베드로의 아내를 가리킨다.
 - b. It is a reference to some unnamed, but well-known member of the church where Peter was.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잘 알려진 교회 교인을 가리킨다.
 - c. It is a reference to the church where Peter was when he wrote.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가 있었던 교회를 가리킨다.
 2. There are three suggestions for the meaning of "Babylon."
"바벨론"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설명이 있다.
 - a. It was Mesopotamian Babylon (i.e., Babylon of the Old Testament fame).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을 가리켰다. (예: 구약 성경에서 유명했음)
 - b. It was a military colony in Egypt, near present-day Cairo.
현재의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 있었던 군대의 식민지를 가리켰다.
 - c. It was a figurative reference to Rome.
로마를 비유적으로 가리켰다.
- D. Mark, my son, sends greetings (5:13). This is probably a reference to John Mark, who spent time with Peter. It is likely that he means that Mark was his son in the faith. He likely either converted Mark or he trained him up in the faith (cf. Php. 2:22; 1 Tim. 1:2).
내 아들 마가가 문안하느니라(5:13). 이는 베드로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마가 요한을 아마도 가리킬 것이다. 마가는 믿음 안에서 그의 아들임을 뜻하는 듯 하다. 그가 개종한 마가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훈련한 마가일 수 있다.
- E. Greet one another with the kiss of love (5:14). This does not require that Christians greet with a kiss. A kiss was the common greeting in that culture. Peter urges them to make sure the kiss stemmed from Christian love and was not abused (cf. Rom. 16:16; 1 Cor. 16:20; 2 Cor. 13:12; 1 Th. 5:26). Whatever the cultural way of greeting, Christians should practice it with proper Christian character.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5:14).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키스로 인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뜻이 아니다. 키스는 당시 문화에서 흔한 일이었다. 베드로는 키스의 남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키스를 권면한 것이다(롬 16:16, 고전 16:20, 고후 13:12, 살전 5:26). 문안하는 문화적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그리스의 특성으로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 F. Peter closed his letter by wishing peace on them all. Christ offers inner peace that can be enjoyed even when life is in turmoil (Jn. 14:27; 16:33).

베드로는 그들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면 그의 서신을 마무리한다. 삶이 힘들 때에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내적 평안을 주신다.

Introduction to 2 Peter

베드로후서 개론

I. Authorship 저자

- A. The author identified himself as Simon Peter the apostle (1:1). As mentioned in connection with 1 Peter, this should be accepted unless there is adequate reason for doubting it.
저자가 스스로 자신을 사도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다 (1:1).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의심한 확실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B. The genuineness of 2 Peter is perhaps attacked more than any other New Testament document. That attack involves a number of elements. For this study, we will only mention a few. This is mainly to make the student aware of the attack and to demonstrate that the evidence can be interpreted in favor of genuineness. Please be aware that a full study of this topic is much more lengthy and detailed than is presented here. The evidence, as usual, is divided into two parts: external and internal.
베드로후서의 진위는 아마도 신약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격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본서의 연구자로 하여금 본서의 진위에 대한 공격이 있으며, 그와 같은 공격은 진위의 증거에 의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외적 증거, 내적 증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것이다.
- C. External evidence
외적 증거
1. It is argued that none of the earliest Christian writers quoted this document or mentioned it by name.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it was produced later and was not accepted as authoritative. Further, it is argued that those who eventually did mention it state that it was doubted.
초기 그리스도교 작가들이 본서를 인용하거나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이것은 본서가 후기에 기록되었으며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후에 본서를 언급한 문서에서도 본서의 진위가 의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D. Internal evidence
내적 증거
1. Since 2 Peter and Jude sound very much alike,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writer of 2 Peter was borrowing from Jude. This would mean that it would have to have been produced too late to have been written by Peter.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매우 비슷하므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유다서를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의미이다.
 - a. One problem with arguments about borrowing i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who borrowed from whom.
이 주장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누가 누구로부터 차용했는가이다.
 - b. Another problem with arguments about borrowing is that both authors could be borrowing from some third unknown, earlier source. The two may not be aware of each other at all.
차용했다는 주장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두 저자가 그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세 번째 사람의 글을 차용했을 가능성이다.
 - c. A final, more important problem with borrowing when it comes to biblical documents is that the authors wer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It could be that Jude and Peter were guided by the Holy Spirit to write the same kinds of things.

마지막으로 차용에 대한 더 중요한 문제는 성경 문서는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다. 유다와 베드로 모두 똑같은 점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2. The Greek style of 2 Peter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1 Peter. It is argued that this is proof that the letter was written by someone other than the apostle Peter.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헬라어 스타일은 베드로전서와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본 서신을 썼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있다.
 - a. These two letters deal with considerably different themes. It is no surprise, at least to some extent, that the language would be different.
본 두 서신은 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용된 언어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 b. It is sometimes suggested that whatever differences in style are noticeable may be attributed to who actually did the writing of the document. Remember that Silvanus appears to be the amanuensis of the first letter (1 Pet. 5:12). If Peter used a different amanuensis for the second letter, that might account for some of the stylistic differences. Or, as some have suggested, if Peter himself wrote the second letter without an amanuensis, that would account for any stylistic differences.
문서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누가 실제로 본서를 썼는가에 대한 고려를 하게 해준다. 실루아노가 첫번째 편지를 쓴 사람임을 기억해보라(벧전 5:12). 만약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다른 대필자를 사용했다면 스타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만약 베드로가 대필자 없이 두번째 편지를 썼다면 문서 스타일의 차이가 납득이 된다.
3. Some argue that the reference to the fact that “the fathers” had died (3:4) indicates that this was much later in church history than Peter’s lifetime. The fact is, however, that the church has been in existence for more than thirty years before Peter died. Certainly, there would have been a number of Christian deaths in that period of three decades.
“조상들”이 잔 후 (죽은 후, 3/4) 라고 언급한 사실은 본 서신이 베드로시대보다 훨씬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죽기 전 교회가 이미 30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 30년 기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4. Some argue that the reference to Paul’s letters as Scripture (3:15-16) proves a much later date. This argument, however, depends upon a flawed theory of canonization. The truth is that inspired documents were recognized and accepted as authoritative immediately when they were written. Paul himself urged the Corinthians to accept his letter as the commands of the Lord (1 Cor. 14:37).
바울 서신서에서 베드로의 서신을 성경이라고 언급한 점이 바로 베드로의 서신이 아주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옳바르지 않은 정경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실은 영감으로 기록된 문서는 문서가 기록될 때 바로 (정경으로) 인정되고 즉시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바울 자신도 그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했다(고전 14:37).

E. Pseudepigrapha

위경

1. Ancient documents that purported to be written by authoritative men, but clearly were not, are put under the label “pseudepigrapha.” This is from the Greek work which means “false writing.”
권위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알려진 고대 문서들이지만 “위경”이라고 분리하는 문서들이 있다. 이 헬라어 단어는 “거짓 기록”이라는 뜻이다.
2. Authors would claim connection to an authoritative figure, like an apostle, in order to

gain credibility for their documents.

저자들이 그들 문서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 권위있는 사도 같은 사람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 There are documents that claim to be connected to Peter, but clearly are not. This would include the *Acts of Peter* and the *Apocalypse of Peter*.
베드로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와 관련 없는 문서로는 베드로행전과 베드로 계시록이 있다.
4. Some would place 2 Peter in this category, but a comparison of 2 Peter with these other documents and a consideration of all the evidence shows that 2 Peter is quite different from them.
베드로후서를 이와 같은 위경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베드로후서와 다른 문서들을 비교해 보면 모든 증거들이 베드로는 기타 다른 문서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II. Recipients. This letter was sent to the same destination as the first letter (3:1). Thus, it was sent to the Christians in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cf. 1 Pet. 1:1).

수신인. 본 서신은 첫번째 서신과 같은 수신인에게 보낸 것이다(3:1). 그러므로 본 서신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그리스도인들에 보냈다.

III. Date – early to mid-60s

저작 연대 - 60년대 초반에서 중반

A. Peter indicated that he was near death when he wrote this letter (1:14).

베드로는 본 서신을 쓸 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했다 (1:14).

1. It is worth noting that question the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tachinos* as “soon.” The complaint is that the word means “swiftly” and refers to the quickness with which Peter would die rather than a reference to how soon it would happen.
헬라어 “타치노스”를 “곧(임박한)” 으로 번역하는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단어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죽음이 곧 닥칠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신속히(즉시)” 베드로가 죽는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2. The next verse (15), however, indicates that Peter was making provision for them after his death.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usually do when death is imminent.
그러나 그 다음 절 (15)을 보면 그의 죽음 후를 대비하는 것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울 때 보통 이런 준비를 한다.

B. Jesus’ description of how Peter would die indicates some sort of execution (Jn. 21:18-19). Tradition says that Peter was crucified upside down.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Peter was killed in the Neronian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which would put it sometime in the mid-60s.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그의 처형이 어떤 것인지를 시사해 준다 (요 21:18-19). 전해져 오는 말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한다. 베드로가 교회에 대한 네로 박해 때, 약 60년대 중반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C. If this letter was shortly before Peter’s death, it would likely have been written in the early to mid-60s.

본 서신이 베드로의 죽음 바로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면 60년대 초기부터 중반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IV. Theme
주제

A. It is God’s truth that saves (Jn. 8:31-32). Any corruption of that truth will lead people away from the Lord and salvation. False teaching is a significant threat to saving faith. This threat is mentioned often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the topic addressed by Peter in this letter. Thus, I have labeled our study “Coping with False Teachings.”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요 8:31-32).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타락도 사람을 주님과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거짓 교훈은 구원하는 믿음에 중대한 위협이다. 이 위협이 신약성경에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 점을 베드로가 본 서신에서 주제로 다루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서신을 “거짓 교훈에 대한 대처”로 명명했다.

- B. Peter’s approach seems to be a preventative one. That is, he seems to have been trying to fortify his readers so that they would not fall victim to false teaching.
베드로의 접근방법은 예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가 독자들로 하여금 거짓 교훈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 C. The best way to deal with false teaching and false teachers is by being spiritually ready. This involves spiritual maturity and knowledge of the truth (Acts 20:28-32; Eph. 4:11-15).
거짓 교훈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성숙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행 20:28-32, 엡 4:11-15).
- D. Peter’s approach in this letter is threefold. We will follow this scheme in our study of the letter.
본 서신에서 베드로의 접근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본 서신의 연구에서 우리는 그의 이 계획을 따라가 볼 것이다.
1. He began by giving the instruction and encouragement necessary for spiritual growth (chapter 1).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훈과 격려를 주면서 시작했다(1장)
 2. He described false teachers and how they work (chapter 2).
거짓 교사와 그들의 하는 일에 대해 언급했다(2장)
 3. He gave an example showing how knowing the truth can help one identify and answer a false teaching (chapter 3).
진리를 아는 것이 거짓 교훈을 어떻게 밝혀내고 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지를 돕게 된다는 점을 예를 통해 보여 주었다(3장)

V. Outline of 2 Peter: Coping with False Teachings

베드로후서 2장의 요점: 거짓 교훈에 대한 대처

- A. Coping with false teachings through spiritual maturity (chapter 1)
영적 성숙을 통해 거짓 교훈에 대처 (1장)
1. Spiritual maturity depends upon growth (1:3-11)
영적 성숙은 성장에 달려있음 (1:3-11)
 - a. Bases of Growth (3-4)
성장의 기초 (3-4)
 - b. Building blocks of growth (5-7)
성장을 쌓는 요소들 (5-7)
 - c. Benefits of growth (8-11)
성장의 유익 (8-11)
 2. Spiritual maturity is based upon truth (12-21)
영적 성숙은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12-21)
 - a. Remembrance of truth (12-15)
진리에 대한 기억 (12-15)
 - b. Report of truth (16-18)
진리에 대한 보고 (16-18)
 - c. Record of truth (19-21)
진리에 대한 기록 (19-21)
- B. Coping with false teachings by understanding false teachers (chapter 2)
거짓 교사에 대한 이해로 거짓 교훈에 대처하는 법 (2장)
1. Their conduct (1-3a)
그들의 행동 (1-3)
 - a. They masquerade as one of us (1)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가장한다 (1)
 - b. They move in secret (1)
그들은 비밀스럽게(가만히) 움직인다 (1)

- c. They mislead many (2)
그들은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한다 (2)
 - d. They mar the reputation of the truth (2)
그들은 진리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2)
 - e. They make merchandise of you (3)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다 (3)
 - f. They mold their own words (3)
그들은 말을 꾸며낸다 (3)
- 2. Their condemnation (3b-10a)
그들의 정죄 (3-10)
 - a. Certainty of judgment (3b)
심판의 확실성 (3)
 - b. Cases of judgment (4-8)
심판의 실례 (4-8)
 - c. Conclusion of judgment (9-10a)
심판의 결론 (9-10)
- 3. Their character (10b-16)
그들의 특징 (10-16)
 - a. They despise authority (10b-11)
그들은 권위를 멸시한다 (10-11)
 - b. They walk after the lusts of the flesh (12-16)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좇아 행한다 (12-16)
- 4. Their claim (17-22)
그들의 주장 (17-22)
- C. Coping with false teachings by knowing the truth (chapter 3)
진리를 앎으로써 거짓 교훈에 대처 (3장)
 - 1. Know where it comes from (1-2)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라 (1-2)
 - a. Words of the prophets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 b. Commandmen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명령
 - 2. Know how to use it (3-15a)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라 (3-15)
 - a. False doctrine stated (3-4)
거짓 교리에 대한 언급 (3-4)
 - b. False doctrine answered (5-10)
거짓 교리에 대한 답변
 - c. The real issue (11-15)
실질적인 문제 (11-15)
 - 3. Know the danger of twisting it (16-18)
성경을 왜곡하는 위험성을 알라 (16-18)
 - a. Some twist the scripture (16)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음 (16)
 - b. YOU are in danger (17)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 (17)
 - c. The solution: grow (18)
해결책: 성장 (18)

2 Peter: Coping with False Teachings

베드로후서: 거짓 교훈에 대한 대처

I. Opening of the Letter (1:1-2)

서신의 머리말 (1:1-2)

- A. Peter the apostle identified himself as the author of this letter. We considered this in the introduction section.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본 서신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론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 B. This is addressed to those who were of the faith – that is those who were Christians. They are further identified in 3:1 as the same recipients of the first letter. Faith makes all Christians equal before God. Notice that Peter said the faith of the recipients of this letter had equal standing with his.
여기서 믿음을 가졌던 곧 그리스도인 이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베드로의 첫번째 편지를 받은 동일한 수신인으로 3:1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만든다. 본 서신을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라.
- C. Peter wanted grace and peace to be multiplied to them. Grace and peace are crucial elements of the gospel. God offers both to us through Jesus. Further, Peter hints at the crux of this letter by pointing out that grace and peace are multiplied through the knowledge that God gives.
베드로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될 것을 원했다. 은혜와 평강은 복음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이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통해 더욱 많아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II. Coping with False Teachings Through Spiritual Maturity (1:3-21)

영적성숙을 통해 거짓 교훈에 대처 (1:3-21)

A Spiritual Maturity Depends Upon Growth (1:3-11)

영적성숙은 우리의 성장에 달려 있음 (1:3-11)

1. The Bases of Growth (3-4). God supplies four vital ingredients for spiritual growth. Without these elements, spiritual growth would not be possible.
성장의 기초(3-4). 하나님은 영적성숙을 위해 네 가지 필수적인 재료를 공급하신다. 이런 요소 없이는 영적성숙이 불가능하다.
 - a. Instructions –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In the Bible, God has given us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grow (1 Cor. 2:9-13; Tit. 2:11-14; 2 Tim. 2:15).
교훈 -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자세한 교훈을 주셨다(고전 2:9=12, 딤후 2:11-14, 딤후 2:15).
 - b. Motivation – “promises.” To accomplish anything, one must be motivated to action. The Christian must not only know how to grow, he must be motivated to act on that knowledge. The promises of God are far more valuable than earthly riches. That hope pushes the Christian to action (cf. 2 Cor. 4:16-18).
동기 - “약속”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물질적 부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밀어준다.

- c. Goal –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People generally will continue a certain activity only for a short time without knowing what they are trying to accomplish. A goal is needed. The goal behind the biblical instructions is to develop in people a God-like character (cf. Eph. 5:1; Mt. 5:48). For example, we can be honest like God is honest.
 목표 -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알지 못하면 잠시동안만 어떤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목표가 필요하다. 성경의 교훈 뒤에 있는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으로 계발시키는 것이다(엡 5:1, 마 5:48). 하나님의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할 수 있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 d. Condition –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A certain condition must be met before the first steps toward spiritual growth can be taken. One must obey the gospel and escape the corruption of sin (cf. Rom. 6:17-18).
 조건 -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적성숙에 대한 첫 걸음을 떼기 전에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고 죄악의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다(롬 6:17-18).
2. The Building Blocks of Growth (5-7). Faith is the starting point for spiritual growth (5). The faith is assumed since this is addressed to those who are already Christians.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need to be added to one’s faith.
- 성장을 쌓은 요소들 (5-7). 믿음은 영적성숙을 위한 출발점이다(5).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언급되었으므로 믿음이 전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은 믿음 위에 더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 a. Virtue, moral excellence, desire to do right. This word seems to refer to the desire to be good. The quest for moral excellence derives from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덕, 도덕적 우월성, 의로운 일을 하려는 소원. 이 단어는 선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리키는 것 같다.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끌어낸다.
 - b. Knowledge (cf. Eph. 3; Jn. 8:31-32; Hos. 4:6). Knowledge is mentioned often throughout 2 Peter. The desire for moral excellence drives one to find out what it takes to reach that status. This leads to a diligent study of God’s word to obtain that knowledge.
 지식(엡 3, 요 8:31-32, 호 4:6). 지식이 베드로후서에서 종종 언급되었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고자 하는 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 우월성에 도달하게 하는지 찾게 해준다. 이것은 그 지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있는 연구로 이끌어 준다.
 - c. Self-control. Once the Christian knows how to become morally excellent, he must put it into practice. This takes self-discipline. Each one must determine to do those things that are required by God (cf. Jas. 1:22-25).
 절제 -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도덕적 우월성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약 1:22-25).
 - d. Endurance (patience) (cf. Heb. 10:36-39). The Greek word used here (*hupomone*) means “to remain.” It is the opposite of giving up. It is essential for the Christian to keep on practicing self-control in order to

develop spiritual growth. It is a long process.

인내 (히 10:36-39) -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후모모네)는 “머무르다”를 뜻한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과 반대된다. 영적성숙을 계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절제를 계속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긴 과정이다

- e. Godliness. The word used here () is a bit difficult to define. It involves deep reverence and piety toward God, but it also has to do with one's lifestyle. It seems to be a God-like behavior that stems from a reverent attitude toward God (cf. Eph. 5:1; 1 Cor. 11:1).

경건 - 이 단어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외경과 독실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의 스타일도 그래야 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같은 행동인 듯하다(엡 5:1, 고전 11:1).

- f. Brotherly love (*philadelphia*). There is a special, warm connection that must be developed between Christians (cf. 1 Pet. 1:22; Gal. 6:10). While the Christian learns to love all people (see the next point), there is a special love for other Christians.

형제 우애(필라델피아) -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특별하고도 따뜻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벧전 1:22, 갈 6:10).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

- g. Love (*agape*). This is a word that seems to indicate that one wants what is best for another person. While it does involve an emotional feeling, it is far more than an emotional feeling. It is the desire to do what is best for others (cf. Jn. 15:13). This is why one can learn to love even his enemies (Mt. 5:44).

사랑(아가페) -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함을 의미하는 뜻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느낌도 들어있지만 감정적 느낌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들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요 15:13).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마 5:44).

- 3. The Benefits of Growth (8-11). Certain benefits result from developing these traits. Notice that these benefits only come to those in whom these traits abound.

성장의 유익(8-11). 이와 같은 성품들을 계발하면 그 결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익은 다음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서만 나온다는 점을 주목하라.

- a. Activates knowledge (8). It is possible to be unfruitful in knowledge – if it is not used (Jas. 1:22-25).
지식을 활성화시킨다(8).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약 1:22-25).
- b. Avoids blindness (9). The Greek word here (*muopazo*) is the word that refers to being near-sighted. With proper spiritual growth, one learns to see beyond this current, physical life to the eternal life with God (cf. 2 Cor. 4:16-18).
보지 못하는 것을 피한다(9). 여기 나오는 헬라어(무오파조)는 근시를 가리킨다.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이와 같은 현재의 물질적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 삶을 보는 법을 배운다(고후 4:16-18).
- c. Assures calling and election (10, cf. Col. 2:7). To be the chosen ones of God requires an obedient response to the gospel. It also requires continued obedience. One can forfeit his status if he fails to continue to grow.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10, 골 2:7).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사람이 지속적인 성장에 실패하면 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 d. Averts falling (10). It is possible to fall away from right relationship with God. Practicing these qualities prevents that danger.
실족하지 마라(10).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 타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품성들을 실천하면 그런 위험을 피하게 된다.
- e. Affords an abundant entrance into heaven (11). Our goal of life with God for eternity depends upon us actively living the Christian lifestyle.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11).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

B. Spiritual Maturity is Based on the Truth (12-21). The word “therefore” (*dio*) links the following comments about the truth with the previous comments about growth. This is because it is imperative to have God’s truth in order to grow.

영적성숙은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12-21). “그러므로”(디오)라는 단어는 이미 언급한 성장에 대한 다음 설명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야 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 Remembrance of the Truth (1:12-15; cf. Heb. 5:11-14)

진리의 기억 (1:12-15, 히 5:11-14).

- a. Note that Peter wanted them to remember the truth which they already knew and in which they were established.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알고 거기에 서 있는 진리를 그들이 기억하기 원함을 주목하라.
- b. It is the work of a minister to remind the brethren (1 Tim. 4:6; 2 Tim. 2:14; Tit. 3:1; Jude 5).
형제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전도자의 사역이다(딤후 4:6, 딤후 2:14, 딤후 3:1, 유 5).
- c. Some suggest that Peter’s endeavor to provide for their remembrance was a reference to Mark’s gospel. It is suggested that Mark was Peter’s companion while Peter preached in Rome, and then Mark wrote the gospel at Peter’s direction.
바울이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마가복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마가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도할 때 그의 동역자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후에 마가가 베드로의 지시를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한다.
- d. Make the connection to the larger context – if one forgets the truth on any topic, he is ripe for deception on that topic.
보다 큰 문맥에 연결하라 - 만약 어떤 주제에 대한 진리를 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주제에 대해 속고 있는 사람이다.

2. Report of the Truth (16-18)

진리에 대한 보고(16-18)

- a. It is common for modern theologians to claim that much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gospels is mythical. They suggest that the church made up much of that material in order to make Jesus into a legend. Peter insisted that they had not followed cunningly devised myths (16; cf. 2 Tim. 4:1-4).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신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 교회가 그와 같은 자료들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베드로는 그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6, 딤후 4:1-4).

- b. Peter knew that the information was genuine because he was an eyewitness. He mentioned specifically what he saw and heard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16-18; cf. 1 Jn. 1:1-3).

베드로는 자신이 바로 증인이므로 그 정보가 거짓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변화산에서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언급했다(16-18, 요일 1:1-3)

3. Record of the Truth (19-21)

진리에 대한 기록 (19-21)

- a. Testimony of prophecy (19) – the context indicates this is a reference to Old Testament prophecy, the fulfillment of which is proof of its truth.

선지자들의 증거 (19) - 본문은 이것이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예언의 성취는 진리에 대한 증거이다.

- b. Jesus is the morning star and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are the lamps. Those prophecies will bring you along to Jesus, the source of true light (19). The point is that Old Testament prophecies point to Jesus.

예수는 새벽 별이고 구약의 예언은 등이다. 그 예언들은 우리를 빛의 근원이신 예수께 인도한다(19).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 c. Those prophecies were not the imaginings of mere men; they were the inspired message from Go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verse 20 is about the origin of those prophecies and no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ose prophecies. Verse 21 is given by Peter as a further explanation of what he meant in verse 20.

그 예언들은 단지 사람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 받은 메시지였다. 20절에서 그 예언들은 예언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그 예언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21절에서 베드로는 그가 20절에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한 설명을 주고 있다.

4. Inspired prophets predicted the work and teachings of Jesus and inspired eyewitnesses proclaimed it. It is true and must be remembered by the followers of Jesus.

영감 받은 선지자들은 예수의 사역과 교훈을 예언했고, 영감 받은 증인들은 이를 선포했다. 그것은 진리이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III. Coping with False Teachings by Understanding False Teachers (2:1-22)

거짓 선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거짓 교훈에 대처하는 법 (2:1-22)

A. Their Conduct (1-3)

그들의 행동 (1-3)

- 1. They masquerade as one of us (1). Peter had just referred to the Old Testament prophets. Here he states that there were also false prophets in those days. In the same way, he warned that there would be false teachers among Christians. The danger is not only from those without attacking the church, but there is also danger within. There are those who pretend to be Christians but are teaching false things (cf. Acts 20:29-30; 1 Jn. 2:18-19; 2 Jn. 7-11).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가장한다(1). 베드로는 방금 전 구약의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그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똑 같은 방법으로 그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험은 교회밖에서 오는 공격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지만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행 20:29-30, 요일 2:18-19, 요이 7-11)

2. They move secretly (1). It is not always obvious that someone is teaching a false doctrine. They can appear genuine and pious and helpful. Their error is not limited to one thing. Peter indicated that they would go so far as to deny Jesus. He did not indicate that this was the only thing that they did; he indicated that they would go even that far in their wrong teachings.
그들은 가만히(비밀리에) 움직인다 (1). 어떤 사람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는 항상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경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의 잘못은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3. They mislead many (2). That many would follow them demonstrates the extent of the danger. This is not a small problem. Further, Peter indicates that their ways were “sensual” (*aselgeia*). Their teaching was designed to remove restraints, especially on moral issues.
그들은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2).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들의 방법은 “호색적(감각적, 아셀제니아)”이다 라고 지적한다. 그들의 교훈은 제한을 제거하려는 데 있는데, 특히 도덕적 문제에서 그렇다.
4. They mar the reputation of the truth (2). The way of truth will be blasphemed because of these false teachers. People outside Christianity lump all who claim to be Christians together. So, they judge Christianity based upon the teachings and actions of those who are most well know. If those individuals misbehave or teach error, outsiders will speak evil of Christianity.
그들은 진리의 가치를 훼손한다 (2).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신성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한데 통틀어 이처럼 비방한다. 그러므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훈과 그 교훈을 잘 아는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 각 개인이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악하다고 말할 것이다.
5. They make merchandise of you (3). The Greek word *emporeuomai* refers to doing the work of a merchant – buying and selling and making a profit. Because they are greedy, they see the church as a way to make money (1 Tim. 6:5; Tit. 1:11).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truth or the salvation of souls. Thus, they will teach whatever brings in the most money.
그들은 너희로 이득을 얻을 삼는다 (3). 여기 나오는 헬라어 엠포레워마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의 일을 뜻한다.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본다(딤후 6:5, 딤후 1:11).
6. They mold their own words (3). Their words are modified by the adjective *plastois*. This English word “plastic” comes from this Greek word. Plastic is moldable. It can be reshaped to suit the need. So, these teachers redefine words so that their teachings seem to fit Scripture. It is imperative to know the true meanings of biblical terms.
그들은 말을 지어낸다 (3). 그들의 말이 형용사 플라스토이스로 한정되었다. 영어 단어 “플라스틱”이 헬라어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플라스틱은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생들은 그들의 교훈을 성경에 맞게 보이게 하려고 말문을 재정의한다. 성경적인 용어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그런 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B. Their Condemnation (3-10)

그들의 정죄 (3-10)

1. Certainty of judgment (3). Their judgment is not idle or asleep. This means that it will happen. These false teachers will not escape God's judgment.
심판의 확실성 (3).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이것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 Cases of judgment (4-8). Peter gave examples of others who did not escape God's judgment in order to prove that God will hold people accountable.
심판의 예 (4-8).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증거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 a. Angels that sinned (4). This indicates that angels are amenable to some law, since without law there is no sin (Rom. 5:13; 1 Jn. 3:4). Some connect this sin with the marriage of the sons of God and the daughters of men (Gen. 6:2). There is no indication at all that the sons of God in Genesis 6 was a reference to angels. Such a thing would not fit in the context of that passage, since it is all about the sins of humans. Further, Jesus indicated that angels do not marry (Mt. 22:30). It is better to connect this sin with the rebellion indicated in Jude 6. The point is that even angels cannot escape God's judgment when they sin. The Greek verb *tartarao* here indicates that God cast them into a place called Tartarus. This is where they are imprisoned to await Judgment Day.
범죄한 천사들 (4).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도 없다고 했으므로(롬 5:13, 요일 3:4) 천사들이 어떤 율법들을 변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천사들의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본문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마 22:30). 이 죄는 유다서 6절에 나타난 대로 반역과 관련시키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요점은 천사까지도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동사 타타라우는 하나님이 그들을 타르타로스(심연)라고 불리는 곳으로 던짐을 가리킨다. 이곳은 심판날까지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다.
 - b. Wicked people of Noah's day (5). God destroyed with the flood all people except those eight who were on the ark. They did not escape God's judgment. It is interesting that Noah is described as a preacher of righteousness. So, he not only lived a righteous life, he also preached it to others.
노아 때의 악한 사람들 (5). 하나님은 방주의 여덟 사람을 제외하고 홍수로 모든 사람을 멸망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서 노아를 가리켜 의의 전도자(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묘사한 점이 흥미롭다. 그러므로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기도 했다.
 - c. People of Sodom and Gomorrah (6-8). God reduced the cities to ashes, indicating his severe judgment against the wicked. Notice that Lot is called a righteous man who was disturbed significantly over the wickedness of the people there.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6-8). 하나님은 그 도시들을 재로 만드셨다. 이것은 악에 대한 그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준다. 여기서 롯을 가리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 당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른 점에 주목하라.
3. Conclusion of judgment (9-10). Verses 4-10 constitute one extended

conditional statement. Verses 4-8 provide the condition and verses 9-10 provide the conclusion.

심판의 결론 (9-10). 4-10절은 심판의 조건, 9-10절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 a. God can and will save the righteous and condemn the wicked.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을 정죄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 b. Notice that there are two further descriptions of the false teachers under consideration in this passage (10). They indulge their passions (like the people of Sodom and Gomorrah) and they despise authority (like the angels who sinned). This is further examined in the next section.
본 구절을 살펴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이 더 나온다 (10).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에 빠졌으며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권위를 무시한다 (범죄한 천사들처럼).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C. Their Character (10-16)

그들의 특징 (10-16)

1. They despise authority (10-11; CF. Jude 8-10)
그들은 권위를 무시한다 (10-11, 유 8-10)
 - a. They blaspheme “the glorious ones” (*doxas*). It is unclear to whom this refers. Some claim it is a reference to heavenly beings, like Christ or the Holy Spirit. Others claim it is a reference to human authorities, like the apostles or church elders. The point is that these teachers are so arrogant that they are not afraid to speak against those who are in authority.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독사스)을 무시한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나 성령 같은 하늘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사도들이나 교회의 장로들 같은 사람의 권위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요점은 이런 선생들은 매우 교만해서 권위있는 자들을 대항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b. Angels, who are greater in power than these teachers, do not blaspheme their enemies (cf. Jude 9). False teachers often attack church leaders as a means to gain control.
거짓선생들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은 그들의 적을 신성 모독하지 않는다 (유 9). 그러나 거짓선생들은 교회 지도자를 자기 뜻대로 조절하는 방편으로 종종 그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2. They pursue fleshly passions (12-16). These are complex verses, filled with modifying phrases.
그들은 육적 욕망을 추구한다 (12-16).
 - a. They are irrational animals (12). They only do what their physical passions urge them to do, just like animals. They do not submit to a higher moral standard.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12).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 b. They speak evil about things they do not understand (12). They ridicule the truth without even taking the time to properly understand it.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악하게 말한다 (12). 그들은 진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려는 시간도 갖지 않고 진리를 조롱한다.

- c. They enjoy ungodly living openly (13). Bad things are often done under cover of darkness, in order to hide them. These teachers are so wicked they do not try to hide their misbehavior at all.
그들은 공공연하게 불 경건한 삶을 즐긴다 (13). 나쁜 일들은 감추기 위해 어둠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 이 선생들은 자기들의 나쁜 행동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고 행하는 매우 악한 사람들이다.
- d. They are spots and blemishes (13). Jesus died to take away sins, so that the church could be free of spot and blemish (Eph. 5:25-27). These teachers are spots and blemishes on the church because of their behavior.
그들은 점과 흠이다 (13). 예수는 죄를 없이기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점과 흠이 없게 될 수 있었다(엡 5:25-27). 이 선생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교회에 점과 흠이 되었다.
- e. They are deceitful (13). They use deceit to push their false teachings. But, it goes further than that. They take delight in deceiving those they think are below them. They join in close fellowship with others as though they are friends when they are trying to lead them astray.
그들은 속인다 (13). 그들은 거짓 교훈을 넣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 그러나 속임수보다 더 한 것을 한다. 그들은 자기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즐겨한다. 서로 친구지만 그들을 다른 길로 타락하게 힘쓰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
- f. They are consumed with sinful pursuits (14). Their appetite for sin is ravenous. This is pictured as have eyes full of adultery.
그들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14). 그들은 죄에 몹시 굶주려 있다. 이것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려진다.
- g. They entice unsteady souls (14). Those who are not firmly established in the faith are easy prey for these teachers.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14). 믿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런 선생들의 먹이가 되기 쉽다.
- h. Their hearts are trained in greed (14). Your heart will pursue what you train it to pursue. You can train your heart to pursue righteous living (Heb. 5:14). You can also train your heart to pursue greed.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단련되었다 (14). 우리 마음은 우리가 추구하려 단련된 것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다(히 5:14).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도 단련될 수 있다.
- i. They have forsaken the right way and gone astray (15-16). They have left the pathway of truth and are teaching error. They follow the same path chosen by Balaam, who chose the wrong path for money. Remember Paul's warning to Timothy (1 Tim. 6:6-10).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15-16). 그들은 진리의 길을 떠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발람이 선택한 길을 따르고 있다. 그는 돈을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경고를 기억하라 (딤후 6:6-10).

D. Their Claim (17-22)

그들의 주장 (17-22)

- 1. They promise freedom to those who will follow them (19). They speak loud boasts and know how to entice those of weak faith (18). They present a very strong and convincing argument that can easily deceive.
그들은 자기를 따를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19). 그들은 크게 소리질러 자랑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고 있다 (18). 그들은 아주 강하고 그럴싸한 쉽게 속일 수 있는 논쟁을 벌인다.

2. It is an empty promise which they cannot keep (17). Peter used two images to illustrate the emptiness of their promise. They are like empty wells and wind-blown clouds. One expects water but does not find it. So, one expects freedom from these teachers but finds slavery instead (19).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헛된 것이다 (17). 베드로는 그들의 헛된 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했다. 그들은 비어 있는 우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 같다고 했다. 물을 기대하지만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선생들에게서 자유를 기대하지만 자유 대신 종이 되고 만다.

3. Even though they promise freedom, they themselves are slaves (19; cf. Rom. 6:16).

그들이 자유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종들이다 (19, 롬 6:16).

4. Those who turn back to sinful living after obeying the gospel are in worse condition than they were before they obeyed (20-22). He referred to those who have escaped the defilements of the world. This is a reference to those who have been forgiven by Jesus. These are Christians. If, after they became Christians, they are entangled again in sinful living, their last state is worse than the first. How can it be worse? It is worse because they have turned away from the only thing that can save them. This is further proof that a Christian can so sin as to be lost (Lk. 9:62; Gal. 5:4; Ezek. 33:12-16).

복음에 순종하고 난 후 죄 된 생활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순종하기 전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20-22). 그는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다. 이것은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죄 된 생활에 다시 말려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보다 더 나쁘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후에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눅 9:62, 갈 5:4, 겔 33:12-16).

IV. Coping with False Teachings by Knowing the Truth (3:1-18). Peter will give an example of a then current error to show how to use the truth to combat error.

진리를 앞으로써 거짓 교훈에 대처하기 (3:1-18). 베드로는 어떻게 진리를 사용해 오류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모범을 보여줄 것이다..

A. Know where the truth can be found (3:2)

진리가 발견되는 곳을 알라 (3:2)

1. The prophets were inspired spokesmen for God (cf. 2 Pet. 1:20-21). This involved far more than merely predicting the future, although they did at times predict the future. They proclaimed God's message to people. The key point is that they provided a God-inspired message.

선지자들은 영감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다 (벧후 1:20-21). 이것은 그들이 때로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단지 미래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여기서 주요 요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메시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 The apostles were also inspired spokesmen for God (1 Cor. 4:1; 2 Cor. 3:1-6; 4:7; etc.).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감 받은 대언자들이었다 (고전 4:1, 고후 3:1-6, 4:7).

3. This seems to be a brief reminder to the readers about where the truth can be found when faced with any teaching. One must always be willing to consult the inspired record to evaluate any teaching.

이것은 어떤 교훈과 맞닥뜨릴 때 진리가 발견되는 곳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간단히 상기시켜 주는 듯하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평가할 때 영감 받은 기록과 항상 대조해 보려고 해야 한다.

B. Know how to use the truth (3:3-15)

진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라 (3:3-15)

1. False teaching stated (3-4). The false doctrine given as example was the contention that there will be no second coming of Jesus. The main argument advanced in support of this error was that significant time had elapsed and nothing had changed. Christians were dying and Jesus had not come back. Also notice that these teachers were following their own sinful desires. The point seems to be that this was their real motive rather than a genuine concern for the truth in this issue.
거짓 교훈에 대한 언급 (3-4).
2. False teaching answered (5-10)
거짓 교훈에 대한 답변 (5-10)
 - a. Their argument was unsound (5-7). Their claim was untrue. Things have not continued unchanged since the creation. They ignored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flood. Peter said that they deliberately overlooked this fact (cf. Jn. 3:19-20; Rom. 1:28). False teachers will often skip those matters of truth which contravene their position. Just like the flood was God's judgment then, fire will be God's judgment when the time has come. The point is that one must examine the argument made in favor of a teaching to see if that argument is valid. One must question whether the evidence offered is accurate or not. In this case, the evidence was not accurate.
그들의 논쟁은 논거가 희박하다 (5-7). 그들의 주장은 진리가 아니었다. 창조 이래로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지 않았다. 그들은 홍수의 중요한 영향을 무시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일부러 그런 일들을 간과하려 한다고 말했다(요 3:19-20, 롬 1:28). 거짓 선생들은 종종 그들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려 할 것이다. 마치 홍수가 그 당시 하나님이 심판이었던 것처럼 때가 이르면 이제 불이 하나님이 심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어떤 논쟁이 옳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그 논쟁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된 증거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증거가 옳바르지 않았다.
 - b. A better explanation was given for Jesus' delay (8-9). The fact is that Jesus has not yet returned. That evidence is accurate. One must then consider whether the argument based on that evidence is valid. This evidence has another viable explanation. To conclude that this evidence means Jesus will not return is not the best explanation of the evidence. The best explanation is that God is allowing enough time for people to have a chance to repent. God wants people to be saved (1 Tim. 2:4).
예수의 지체하심에 보다 좋은 설명이 주어졌다 (8-9).
 - i. Time is meaningless to God, since he exists outside time. What appears a long time to us (1,000 years) is not a long time to God (1 day).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므로 시간은 그에게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긴 시간(1,000년) 이 하나님께는 길지 않은 시간(하루)이다.
 - ii. God keeps his promises. People sometimes do not keep their promises, either because they lack the character or because they

lack the ability. God lacks neither. All the evidence available to us shows that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사람들은 품성의 결여나 능력 부족으로 종종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시다.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의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준다.

- c. Statement of the truth (10). It is not enough to show what is wrong with false teach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truth to go in its place. Thus, Peter stated that the Lord will return one day. Notice that he used image that Jesus used to indicate that it will happen unexpectedly – like a thief in the night (Mt. 24:42-43). When that day comes, everything will melt with fervent heat.

진리에 대한 언급 (10). 거짓 교훈에 무엇이 잘못인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자리에 진리로 채워줄 줄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그 일이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마치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비유로 들었음을 주목하라(마 24:42-43). 그날이 올 때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을 것이다.

3. The real issue (11-15)

실제적인 문제

- a. These scoffers who were following their own sinful desires were not holding this position because they really thought the evidence demanded it. They were simply trying to justify evil living. So Peter went to the heart of the matter.
자신의 죄 된 탐욕을 좇는 조소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삶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다.
- b. Since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burned up, how should you be living? The obvious answer is that one should live a holy and godly life (11-12).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갈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11-12).
- c. There is something better for the Christian beyond this world (13). This hope is based on the promise of God. This will be a place where righteousness dwells.
이 세상 너머 더 나은 것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있다 (13).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곳은 의로운 사람들이 거할 곳이다.
- d. Since we are waiting for this hope, there are two things we ought to do. Be diligent to be found holy and at peace when he returns (14). Count the patience of the Lord as salvation (15).
우리가 이 소망으로 기다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다. 열심을 다해 거룩하고 그가 다시 오실 때 평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 (14).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아야 한다 (15).
- e. On the one hand you can take his delay as evidence that he will not return and then live an ungodly life. On the other hand you can take his delay as evidence of God's patience and use your time to repent and live right.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증거이므로 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의 지체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증거로 삼아 회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 f. The bottom line of any doctrinal debate is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어떤 교리적인 토론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본이다.

C. Know the danger of twisting the truth (3:15-18). Peter has stressed that knowing the truth is the key to dealing with false teachings. Christians must also be careful about twisting the truth. Remember even Satan knows how to quote Scripture (Mt. 4:6). Just because someone quotes the Scriptures does not mean he is teaching the truth.
진리를 왜곡하는 위험을 알라 (3:15-18). 베드로는 진리를 아는 것이 거짓 교훈에 대처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탄도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 4:6).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뜻은 아니다.

- 1. Some twist the Scriptures (15-16). Peter cited Paul as additional evidence that what he wrote was true. Further, he warned that there were those who twisted Paul writings just like they twisted the other Scriptures. He particularly pointed out that they twisted the difficult things written by Paul. Difficult passages are easier to twist than plain passages.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한다 (15-16). 베드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 진리라는 추가적인 증거로 바울을 들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들이 다른 성경을 왜곡하듯이 바울이 쓴 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했다. 특별히 바울이 쓴 글 가운데 어려운 부분을 왜곡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어려운 구절들은 평이한 구절에 비해 왜곡하기가 더 쉽다.

- a. Note that Peter calls Paul a beloved brother. This puts to rest any claims that they taught different brands of Christianity.

베드로가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른 점을 주목하라.

- b. Also note that Peter makes reference to the writings of Paul. Paul's writings were already being copied and passed around (cf. Col. 4:16). This was not as late a development as some argue when they discuss the canon.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예로 든 점도 주목하라. 바울의 글은 이미 복사되어 회람되었다 (골 4:16).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나중에 정경으로 토론되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c. Also note that Peter implied that Paul's writings were Scripture just like the rest of Scripture. It did not take a council hundreds of years later to determine that Paul's writings were authoritative. The writings of inspired men were immediately recognized as inspired and authoritative (cf. 1 Cor. 14:37).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이 성경의 다른 부분처럼 성경이라고 부른 점을 주목하라. 수백 년 후에 회의를 통해 바울 서신이 권위있는 문서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영감 받은 사람들이 쓴 기록은 즉시로 영감 있고 권위있는 문서로 인정되었다 (고전 14:37).

- 2. Twisting the Scriptures leads to destruction (16). The point is that false teachers do not always ignore the Bible. They often use it, but they use it inaccurately. Further, the point is that it does matter how you interpret the Bible. There is a right way to understand it (Jn. 14:6; 8:31-32).

성경의 왜곡은 파멸로 이끈다 (16). 여기서 요점은 거짓 선생들이 항상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종종 성경을 사용하지만 바르지 않게 사용한다. 더 나아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길이 있다 (요 14:6, 8:31-32).

- 3. You are in danger (17). It is possible that faithful Christians can be carried

away with the error of lawless people. Since we know about this risk ahead of time, we must be diligent to avoid the threat. Every person is vulnerable (cf. 1 Cor. 10:12).

너희가 위험 속에 있다 (17).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불법한 사람들의 오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미리 이 위험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위험을 피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누구나 공격받을 수 있다 (고전 10:12).

- D. The solution: Grow (3:18). Since some twist the Scriptures and since even faithful Christians are in danger, what can we do? The answer brings us full circle to the beginning of this letter. To avoid the dangers of false teachings, one mus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he more you know the truth, the less likely you are to be led astray by error. Notice that verse 18 is presented as the contrast to the threat of verse 17.

해결책: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를 본 서신의 첫 부분으로 돌아오게 한다. 거짓 교훈의 위험에서 피하려면 우리가 우리 주와 구세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만 한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18절에서 17절의 위험에 대한 대조가 나옴을 주목하라.

- V. Closing of the Letter (3:18). There is no extended closing to this letter. Peter simply closed by extolling God's glory forever. Our attempt to grow and avoid error is part of how we seek to glorify God.

본 서신의 마무리 (3:18). 본 서신에는 확장된 마무리가 없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바로 마무리한다. 성장하고 오류를 피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부분이다.